

중국 공산당 ‘발톱’ 경계하라

중국청년들, 尹탄핵 집회에 대거 참가



이지용
계명대학교수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의 주요 키워드 중의 하나가 ‘중국개입’이다. 탄핵찬성 집회에 중국인 유학생 또는 중국인과 조선족이 대거 참가하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새롭지도 않다. 탄핵찬성 농민집회에는 중국인이 당당하게 중국인임을 밝히고 연설하기도 했다. 탄핵집회 근처 거리에는 ‘扫韩行动组(소한행동조)’라는 스티커를 자동차에 붙이고 활보하는 중국인 차량도 눈에 띄고 있다. ‘扫韩行动组(소한행동조)’란 ‘한국을 쓸어버려 청소하는 행동대’란 의미이다. 한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이른바 ‘우마오당’이라는 중국인 여론조작이 횡행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중국인은 한국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 뿐인가? 중국공산당이 조직적으로 개설한 ‘가짜뉴스’ 사이트가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가짜뉴스’ 사이트는 마치 한국 언론 사이트인 것 같이 교묘히 위장해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한국의 여론을 호도한다.

대규모 중국자본을 받은 방송언론사는 중국에 호의적인 정보 확산과 탄핵관련 편파보도 일색이다. 야당 대표는 정체불명의 중국기자들과 비밀 회동을 개최했다. 이번 계엄령의 주요 배경인 ‘부정선거’ 의혹에 중국이 깊숙이 개입된 정황들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네트워크 시스템 회사에는 중국자본이 조직



차량 뒷유리창에 붙여진 ‘扫韩行动组(소한행동조)’ 스티커. (에픽코리아 캡처 사진, 출처 프리진 경제)



아직도 선거의 각 절차에서 우리나라 주권을 유린하는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모르는 자는 바보입니다.

불집회 중국인, ‘중국인 투·개표’, ‘중국 부정선거’, ‘다산네트웍스 중국자본’, ‘새만금풍력, 낙월해상풍력 중국자본’, ‘여시재’, ‘중앙당교 교류협약’, ‘스마트시티 중국’, ‘중국 한국여론조작’, ‘정율성’, ‘공자마을’, ‘공자학원’, ‘화조(華助)’, ‘애심봉헌단’, ‘중국비밀경찰서’, ‘파로호’, ‘FOLLOW-THE-PARTY’, ‘사모펀드 중국 MOU 6000억’, ‘중국자본 한국엔터산업 텐센트 JTBC스튜디오’, ‘차이나타운’, ‘중국 학자학생연합회’, ‘중국우호연락회’, ‘중국평화통일촉진연합’, ‘태양광 중국 탈원전’, ‘화웨이 통신장비 한국군’, ‘중국정보유출 기무사 소령’, ‘저우위보’, ‘취환’, ‘조선구마사’...여기에 나열한 예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럼

“ 한국언론 사이트 위장 가짜뉴스 양산 야당 대표는 중국기자들과 비밀회동 ”

적으로 관여되어 있기도 하다. 현재 탄핵소추 국면에서 키워드를 ‘중국’에 맞추면 보이는 현실이다. 이 현실은 파편화되어 있고 일시적 현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중국이 한국 사회 곳곳에 깊숙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단면이 한국의 정치불안정 상황에서 표출된 것일 뿐이다. 그런데 그 ‘중국의 영향력’은 중국공산당이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 전개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976년 대남간첩 김용규가 귀순한 후 쓴 책의 제목이 ‘소리없는 전쟁’이다. 무력을 동원하지 않은 전쟁이라

는 의미이다. 1999년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군사전략가인 차오량(喬良)과 왕상수이(王湘穗)는 중국특색의 전쟁론과 군사전략을 집대성해 ‘초한전(超限戰)’이라고 개념화했다. ‘초한전’은 전쟁을 둘러싼 모든 개념, 규칙, 수단, 방법 등의 한계를 모두 초월하는 무제한 전쟁이라는 의미이다. 바로 공산당의 전쟁론이자 전쟁방식이다.

총성없는 초한전, 소리없는 전쟁? 무슨 의미인가? 이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과 관련한 사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인터넷 검색엔진에 다음과 같이 간단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된다. ‘탄핵집회 중국인’, ‘쫓

에도 이 예만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살펴보다도 중국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미디어 등에 전 방위로 파고들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위에 예로 든 키워드는 중국의 총성없는 무제한 전쟁, 즉 초한전(超限戰)의 실체를 보여준다. 한국에 대한 정치개입, 정치공작, 통일전선공작, 여론조작전, 미디어전, 인지전, 문화전, 교육전, 정보통신전, 사이버전, 개발투자전 등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한국사회를 무너뜨리고 친중 종속국가로 만들려는 중국공산당·인민해방군의 총성없는 침략전쟁이다.

중국의 총성없는 전쟁, ‘초한전’(超限戰)에 따르면 전쟁은 군대와 무력을 동원한 국가 간의 충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바로 알기
Kjtv 설날부터 다큐멘터리 주 1회 방영

'부정선거' 의혹에 중국 깊숙이 개입

<1면에 이어서>

전쟁을 왜 하는가? 클라우제비츠가 정의했듯이 한 국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의 연장이다. 즉 상대 국가를 우리의 의지에 굴복하도록 만든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다.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전쟁수단이 반드시 군대와 무력일 필요는 없다. 이것이 초한전이 정의한 전쟁의 목적이다. 따라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력 외에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특색의 '무제한 전쟁'은 현대의 새로운 전쟁개념인 '비대칭전', '4세대전', '하이브리드전', '회색지대전', '혼복전' 등과 비슷하다. 하지만 중국의 '무제한 전쟁'은 이러한 현대적 전쟁수행방식 양상과는 차원이 또 다르다. 말 그대로 그 한계조차도 뛰어 넘는다. 한국과 미국, 자유방세계에 대해 전개하고 있는 '정치전', '통일전선공작전', '인지전/여론전/미디어전', '3전(심리전, 여론전, 법률전)', 'ICT 정보통신전', '사이버전', '마약범죄전', '투자개발전', '무역전', '금융전', '기업전', '기술전', '교육/문화전', '외교전' 등 사회 전영역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이고도 파상적 공격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이 총성없는 '무제한 전쟁'을 전개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중국 국내의 모든 것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해외의 화교와 중국인, 중국기업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다. 목적은 상대 국가를 전 영역에 걸쳐 그 국가

구성원들이 인지조차 못하는 사이에 붕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 빈사상태에 빠진 국가사회를 중국이 최종적으로 친중 종속화 한다는 정치적(전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공산당이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붕괴와 패망을 의미

는 '주종(主從)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현대 중국은 독기어린 공산전체주의 가치와 질서를 기본으로 한 체제이다. 이 체제 질서가 그대로 전 세계에 투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국 공산당이 시도하는 패권확립 전략과 팽창정책의 제1선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와

초한전 (超限戰) 인민해방군 군사 전략가가 만든 총성없는 대외 침략 전술

한다. 한국에 적용하면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은 종언을 고하게 된다.

그런데 '초한전(超限戰)'은 전혀 새롭지 않다. 이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중국공산당은 이미 '무제한 전쟁'을 전개해 왔다. 중국공산당은 이를 '모택동(毛澤東) 군사사상'이라고 칭했다. 보다 정확하게는 모택동이 발전시킨 중국공산당의 전쟁론이자 군사전략전술이다. 모택동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은 이 '무제한 전쟁'을 통해 중국대륙의 기존 정치체제를 전복하고 공산화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제 중국공산당-인민해방군은 '무제한 전쟁'으로 전 세계를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중화민족의 패권질서로 재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중화민족의 중화질서는 미국에 의해 정착된 현대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 19세기 이전 아시아 질서와 같

한국이다. 중국공산당은 전략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국을 친중 종속화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 총성없는 무제한 전쟁을 감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인민해방군의 전쟁개념에 의하면 '현재 한국은 중국과 전쟁 중!'이다. 다만 한국만 중국과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군과 안보기관이 '존재하는 이유'(raison d'etat; 국가의 존재이유)와 '정치적 목적'은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질서와 독립주권을 수호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개념은 '현실 정치'의 그 '정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 특색의 새로운 전쟁, 북한의 '소리없는 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질서와 독립주권을 수호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목적'이다. 그리고 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전쟁 성격의 인식과 함께 그에 대응하는 전쟁개념의 확장과 대응체제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2월6일 제2차 대한언론 문화포럼 프레스센터서 원행대종사 강연

대한언론인회(회장 장석영)는 2월 6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화홀에서 월정사 원행(遠行) 대종사(사진)를 연사로 '대한민국의 국운-원행대종사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제2차 문화포럼을 개최한다. 원행스님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국난에 가까운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올해 을사년의 전망과 미래에 대한 타개책을 나눠보기 위한 담론의 장(場)에 함께 참여하자고 했다.

대한언론인회가 주최하는 이번 제2차 문화포럼은 통일국회뉴스



와 세계평화뉴스가 주관하고 (사)대한노인회 중앙회(회장 이종근)와 행복만들기 중앙회가 후원한다. 원행 대종사는 탄허 대종사 밑에서 수행한 오대산 월정사 선덕(禪德)이다.

산악회 안산서 새해 첫 산행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황우연)는 1월 17일(금) 서울 안산에서 2025 새해 첫 산행을 가졌다. 회원들은 서대문 독립문역을 출발, 이진아 기념도서관-능안정-무악정-메타쉐콰이어길-홍제폭포까지 2시간 가량 트레킹을 했다. 얼어붙은 멋진 폭포앞에서 인증샷을 하고 관망대 카페에서 햇살아래 커피타임.



일행은 버스편으로 맛집 순례에 나서 예약해 두었던 이연복 셰프의 중국 요리집 '목란'으로 갔다. 유명세 만큼이나 절차가 까다롭긴 했지만 요즘 대세인 '동파육'과 '멘보샤'를 맛본 회원들은 한결같이 "맛은 있네. 그럴만 하네"라며 감탄사! 식대는 평상시 두 배가 약간 넘었다.

아, 무법천지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국회·법원·공수처 등 대놓고 위법·탈법·편법



이도선
본지 편집위원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대한민국의 오늘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무법천지’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세우려다 외려 반대 세력에 의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구속되는 세상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부터 법을 안 지키고, 법질서 수호가 존립 목적인 사법부도 법과 따로 논다. 법집행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의 불법 행위도 예사다. 이렇고도 나라가 유지되는 게 신기하다.

현직 대통령마저 “이 나라에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대국민 영상 담화에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9천 자 분량의 육필 원고에서 ‘법치’ 또는 ‘법치주의’란 단어를 18번이나 되풀이한 것은 법이 실종된 작금의 현실에 대한 강력한 경종인 셈이다.

#1. 무법천지 1번지는 단연 국회다. 제22대 총선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같은 범죄혐의자와 전과자가 대거 입성하면서 ‘현대판 소도(蘇塗, 죄인이 숨어도 잡지 못하던 삼한의 성역)’로 전락한 국회에서 탈법과 위법이 횡행하리라는 건 진작 예견된 터다. 이른바 ‘탄핵 정국’도 국회의 불법에서 비롯됐다.

거야는 특검과 탄핵 공세를 줄곧 퍼왔다. 특검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대응하지만 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즉각 직무에서 배제되는 게 문제다. 윤 정권 들어 탄핵소추안이 29건 발의됐고, 국정 공백을 우려한 피소추인들의 자진 사퇴 등으로 이 중 13건이 탄핵 재판으로 이어졌다. 건국 이후 탄핵 재판이 총 16건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탄핵 공세가 얼마나 극악스러운지 쉬이 짐작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 마비” 우려를 단순한 엄살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TV화면 캡처)

윤 대통령은 암담한 정국을 타개하고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여 만에 해제했다. 거대한 야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는 기다렸다는 듯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 12월 7일 탄핵소추안을 상

관부도 원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상상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믿을 이는 아무도 없다. 변경된 소추 사유를 재결의하지 않은 것도 째짜미 못지않은 불법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몰이로 탄핵 소추해 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

로 풀어 주고, 혐의가 소명되지도 않은 윤 대통령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란 달랑 15자짜리 사유로 구속하는 법원을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앞서 서부지법의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는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멋대로 배제하는 월권을 자행했다.

#3. 공수처는 요즘 발군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이다.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다루려고 직권남용죄를 끌어대는 역지를 부렸다. 하긴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죄 혐의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잘못된 선례도 있으니 공수처만 탓할 수도 없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못 받을까 봐 ‘영장 쇼핑’이란 꼼수를 썼고, 형소법 110조 배제 문구가

‘국회 탄핵소추안’ 29건 중 13건 탄핵재판 조국, 징역형 받고도 국회 입성 ‘사법 정치’ 공수처, 직권 남용죄로 내란죄 억지 수사

정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자 일주일 후 재상정해 기어코 통과시켰다. 임시국회란 편법으로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은 지켰다지만 대통령 탄핵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헌법 정신은 여지없이 짓밟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술 더 떠 12월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도 재적 과반수로 밀어붙였다.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 격하시키는 불법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지난달 3일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소추 사유 2가지 중 비상계엄 선포만 남기고 내란죄는 철회한다며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현재와 국회의 째짜미”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뒤늦게 “재

을 뺀다면 사기 탄핵, 사기 소추”라고 비난했다.

#2. 사법부도 불법투성이다. 대법원은 시민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규탄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치주의 운운할 처지가 못된다. 이재명 대표는 “TV토론회에서 한 거짓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대법원 판결 덕에 살아났다. 죄목이 12개나 되는 그의 재판들은 부지하세월이고, 조국 전 대표는 2년형 확정에 5년 걸렸다. 조 전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1~2심에서 징역형을 받고도 법정 구속 없이 국회의원이 됐다. ‘법원 정치’가 현대판 소도 탄생에 한몫했다는 힐난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 이 대표는 “공당 대표에 대한 공적 감시”를 이유

빠진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이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관인을 대리 날인한 ‘딱풀 공문’으로 영장을 불법 집행했다니 기막힌 노릇이다. 경찰관이 100명 넘게 다친 민노총 폭력 집회는 고작 4명만 체포하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구속자만 60명 가까운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니다.

이번 탄핵 사태의 부차적인 소득이 있다면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던 자유민주주의 파괴분자들과 정체가 모호했던 회색분자들의 진면목이 속속 드러난 것이다. 서부지법이 좌파 소굴로 밝혀진 게 좋은 예다. 이들의 불법을 분쇄하고 법치주의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지금은 탄핵 사태의 원만한 극복과 조속한 무법천지 해소가 급선무다. ☐

민주당 ‘카톡 계엄’ 집어쳐라!

전용기의원 카톡검열 ‘민주파출소’에 국민들 반발



임종건
본회 이사
전 서울경제 사장

필자가 휴대폰에서 주로 사용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카톡, 텔레그램, 유튜브 그리고 왓츠앱(whatsapp)이다. 이 중 가장 친숙한 건 물론 ‘국민 메신저’ 카톡이다. 국내 카톡 사용자는 5,000만 명, 다운로드 수는 1억 회 이상이다. 국산 SNS가 외국산인 유튜브, 텔레그램과 왓츠앱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게 이미 널리 알려졌는데도 카톡을 쓰는 사람이 이처럼 많다. 외국산 SNS는 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내용만 받아보는 수동적 이용자가 많은 데 비해 카톡은 쌍방향으로 이용하고, 맘에 드는 내용을 외부에 전달도 하는 등 다양하고 능동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국민 메신저인 카톡을 어쩌면 지금까지처럼 사용하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우울하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의 대립이 첨예하던 지난 1월 10일 “카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단순히 퍼서 나르는 일반인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짜뉴스 신고를 받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민주파출소’를 설치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탄핵정국에서 이것은 또 무슨 해괴한 발상이고 똥판지같은 발언인가? 국민의 말과 생각을 감시 또는 검열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국민이 ‘카톡계엄’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야당 정치인의 입법 폭주를 계엄령으로 다스리겠다는 윤 대통령의 자세에 못지않게, 사용자가 5,000만 명이나 되는 카톡을 검열해서 고발하겠다는 것도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다.

문제의 발언을 한 전 의원은 33세의 2선 의원으로 참신한 차세대 정치인이 되리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으나



민주당의 ‘카톡 계엄령’은 발표되자마자 SNS에서는 이런 조롱을 받고 있다.

이처럼 비민주적 언론관의 소유자임이 드러나자 실망한 보통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카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이 될 수는 없다”며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거드는 모습에 국민은 더 기가 막힌다.

가짜뉴스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가짜뉴스의 조작이나 유포에 조직적인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SNS 시대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공존한다. SNS 상에서 뉴스는 순식간에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된다. 선택적인 뉴스일수록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전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라며 언론 자유 수호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입법을 일삼았다. 야당일 때뿐만 아니라 집권당일 때도 그랬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자실 폐쇄를 추진했고, 문재인 정권에선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배상제도를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민주당의 언론정책은 자기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본 정통 언론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 매체는 대체로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는 과정이 체계적이어서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장치가 이중삼중으로 있다. 기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쉽다.

반면 인터넷과 SNS상의 매체들 가운데는 루머 수준의 얘기들이 뉴스로 다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 확인절차가 생략되기 일쑤이고, 1인 매체로 운영되는 경영구조로 인해 피해 발생 시 보상 대책도 취약하다. 가짜뉴스를 단속하려면 이런 SNS 매체부터 정리하는 것이 맞는 순서일 것이다. 카톡은 SNS 중에서 콘텐츠 관

이재명대표 ‘가짜뉴스 온상 단속’ 발표하자 국내사용자 5000만명... ‘비민주적 발상’

도 아니고,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AI 시대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일은 인간관계에서 최대의 난제로 떠올랐다. 가짜뉴스는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 왜 가짜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문명적인 과제다. 정치권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가짜라고 주장하는데 습관이 된 집단이다. 뻔히 가짜인 줄 알면서도 자기편의 주장은 진짜라고 감싸고, 자기편을 비판하는 내용은 가짜라고 공격한다.

“거짓과 선동 없이 성공한 혁명은 없다”는 말이 있다. 프랑스혁명 때 마리 앙투아네트가 했다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씨를 말리러 왔다”와 같은 유언비어가 그런 예다. 사회적 격동의 크기에 따라 유언비어의 양이나 질이 극단화한다. 윤 대통령 탄핵정국은 국론의 양극화로 인해 유언비어가 만들어질

파랑도 커진다. 가짜뉴스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다. 그러나 SNS는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확인 기능도 같은 속도와 같은 양으로 이뤄진다. 아무리 그럴듯한 가짜뉴스도 1주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같은 자체 정화의 기능이 있어 사회의 질서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역할을 수사기관도 아닌 정당이 한다? 이건 코미디다. 정략적인 판단의 개입으로 선정된 가짜뉴스라면 누가 공정성을 인정할까? 순식간에 수백만 수천만 명에게 전파되는 가짜뉴스의 진원지를 어떻게 추적해 낼까? 이것은 수사기관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내란에 동조하는 가짜뉴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과 수사를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이 그만큼 첨예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일이다. 일반인까지 상대로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고, 가능하지도 않다.

리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메신저로 알려져 있다.

계엄 상황에서 사실 확인 없이 가장 선정적이었던 뉴스 제조자는 계엄군에 의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살설을 퍼뜨린 김어준 씨이다. 민주당의 민주파출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김 씨 발언의 가짜 여부에 대한 조사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 지지도가 상승하자 위기를 느낀 탓이라는 관측도 있다. 60% 이상의 국민이 계엄에 반대하면서도 윤 대통령 지지가 50%에 육박하고,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부적합도가 54%에 이른다니 위기감을 느낄 법도 하다. 그러자 이런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여론조사기관까지 고발한다고 한다. 탄핵과 특검 남발에 고발 남발의 고질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다 계엄 반대여론까지 뒤집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시나? ☞

잡범·국가전복 세력·쓰레기 정치인은 가라

혁명적 정치개혁으로 야만의 정치 끝내야



박석흥
본지 논설위원장
전 문화일보 국장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수감되는 장면을 본 국민은 참담했다. 국가 전복세력과 싸우겠다고던 윤대통령은 보안법도 바꾸지 못하고 취임 2년 8개월 만에 ‘내란 수괴’ 혐의로 수감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지만 6공 5번째 대통령 수감이다.

대통령 탄핵소추도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6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대한민국은 2차대전 후 건국한 나라 중 제일 먼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분열·증오의 막가파 정치와 종북세력의 국가전복전으로 정치는 후진국 5류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 12·3 사태’를 정리하면서 차제에 그동안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였던 잡범과 쓰레기 정치인들을 영원히 추방하고, 왜곡된 민주화와 야만의 정치 극복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6.12.9)을 보도했던 ‘대한연론’을 들춰보면서 윤대통령 탄핵소추(2024.12.14)와 현재 재판도 그때와 비슷하게 진행됨을 확인했다. 박대통령 탄핵 편향 보도에 대해서 조용중 전 연합통신사장은 대한연론에 기고한 <박근혜와 동반 추락한 언론>에 “광란에 휘말린 오욕의 기억”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중앙일보에 ‘12·3 사태’를 소상하게 해석한 헌법학자 허영교수는 “언론이 왜 이렇습니까”라고 ‘대한연론’에 질문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이 “재판부에서 권유한 대로 빼겠다”며 내란죄 혐의 철회를 조종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 탄핵소추 적법절차 위반으로 문제 삼았던 8년 전 사태와 비슷하다. 박근혜 대통령 판결 시비를 현재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8명의 헌법재판관은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을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12·3 계엄선언’이 국민경제에 끼친 손실과 국가 신뢰도 추락은 심각



한국 정치는 의사당처럼 걸만 크고 화려할 뿐 속은 후진적이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여의도 의사당에서 잡범, 국가 전복세력, 쓰레기 정치인을 쓸어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높다.

하다. 이렇게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12·3 계엄과 탄핵 파동’을 정치권은 구악정치 청산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진현 원로 언론인은 저서 『대한민국 통사』에서 “대한민국이 2048년 건국 100주년까지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서 “썩은 정치 리더십이 공동체의 퇴락과 사회혼돈을 가져와 대한민국이 존망의 위기에 있다”고 경고했다. 또 도착근대화(Perverted modernization)의 상징

민국을 후진국으로 추락케 했다. 국회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총회장으로 전락했으며 정상적인 정당도 안 보인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방탄과 진영 이익만 추구하는 패거리 정치에 학습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양분돼 나라가 사실상 내란 중이다. 국가 정체성 혼란으로 나라 전체가 아노미 상태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제6

고 노교수는 예단했었다.

역사 전쟁, 반체제 세력의 체제전복 도전, 포스트모더니즘 파동과 이념 논쟁, 좌파 전체주의 부상 등 총체적 모순으로 제6공화국은 사실상 정체성 혼란에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21년 7월 1일 안동에서 “대한민국 수립은 친일 세력과 점령군의 합작으로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1948년 건국과 정통성을 전면 부정하면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8·15 기념사에서 1948년 건국을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선언보다 대한민국 사 바로잡기를 서둘러야 했었다.

‘12·3 사태’ 사법처리과정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조인의 편향성과 제1야당 수뇌부의 안보 인식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일성은 1972년 남한에 북한이 만든 민간단체가 적지 않다고 공개하며 “더 많은 단체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1973년에는 “남조선은 고등고시 합격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잡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며 고시지원 공작을 주문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

6공화국 정권장악 다툼과 역사뒤집기 몰입 썩은 정치 철폐...정치선진화 계기 삼아야

인 저질정치, 적전분열 정치인의 안보의식, 허망하고 맹랑한 6대 운동권 정치인들의 만행과 망언 등을 열거하며 ‘새 사람’ ‘새 공동체’ 만들기를 새 세대에게 당부했다.

대한민국의 치부는 정치다.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려 노인과 귀한 사람에게 교만하고 백성들도 서로 학대하니 소동처럼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성경 구약 이사야 3장의 ‘아이들’처럼 한국 정치인도 교만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 등 야당은 총리·감사원장·장관 등에게 29차례의 줄탄핵(12건 가결)을 했다.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주요 행정기관의 특활비도 4조1000억 원을 삭감했다. 코너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남용과 국헌문란죄로 수감되어서 대한

공화국은 정권장악 다툼과 역사뒤집기 정쟁에만 몰입, 체제전복 도전에 무방비 상태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서울대 명예교수)는 2011년 국회에서 열린 ‘국민대토론회’에서 “70년대 형성된 반체제 의식화 세력이 정치·언론·법조·교육 분야에서 연합전선 전략을 편 ‘국가전복전쟁’이 이명박 정부에서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노 교수는 저서 『정치학적 대화』에서 “6공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열기와 포퓰리즘 정치 열풍에 휩쓸려서 ‘국가발전’, ‘좋은 정치’, ‘국가 정체성과 공공성 함양’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걱정했다. 체제전복 전선의 전위대로 나선 전교조 일부 교사들의 이념교육이 내전에 가까운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

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노조 간부들이 기소돼 김일성의 전복전쟁 전략 지령이 실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가 전복세력 척결을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A4용지 37페이지 자필 원고를 국민의힘은 검토해 국가전복전쟁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수 나훈아씨가 “왼쪽이 오른쪽 보고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니(너)는 잘했나”라고 한 발언이 화제가 되자, 나라의 재앙인 반도덕적 정치집단에게 국고 지원을 중단하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선론이 본격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용돌이가 썩은 정치를 몰아내고 정치 선진화의 계기로 승화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특파원 수첩 도쿄 ①

1983년 ‘KAL機 캄차카 피격’ 평생 못잊어

특파원 수첩 워싱턴 편에 이어 도쿄 편을 시작합니다. 필자는 성남FM분당방송 대표를 맡고 있는 정용석 전 KBS 도쿄 총국장입니다. 정 대표는 1979년부터 7년 동안 KBS 도쿄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대한항공 007기 격추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을 보도하는 등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편집자 주)



정용석
본회 유튜브 위원
전 KBS 도쿄특파원

1979년 6월 십씨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로 기억되는 어느 날, 필자는 KBS 주일 특파원으로 도쿄에 처음 발을 내디뎠다. 그 후 7년 2개월이 지난 86년 8월, 특파원 근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 날도 참 더웠다.

도쿄 특파원 생활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보면 또 다른 산과 물이 기다리는 취재와 업무의 연속이었다. 매일 아침 5시 기상은 7년에 365일을 곱한 2,500여 일 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규칙적인 생활이었다. 마음 놓고 편히 발을 뻗어본 적이 없었다. 서울 본사에서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에 가슴을 졸인 긴장의 연속이었다. 휴가는 물론이고 몸이 아플 여유조차 없었다.

그만큼 큰 사건이 많았다. KAL기 격추 사건(1983년), JAL기 추락 사건(1985년), NEW JAPAN 호텔 화재 사건(1982년),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1982년) 등등. 모두 초대형 사건이었다. 1인 특파원 시절이라 혼자서 북치고 장구 쳐야 했다. 사건이 많다 보니 놓치는 기사도 종종 있었다. 낙종이다. 기자 사회에서는 이를 “물 먹었다”고 한다. 필자가 처참하게 물 먹은 사건은 지금도 생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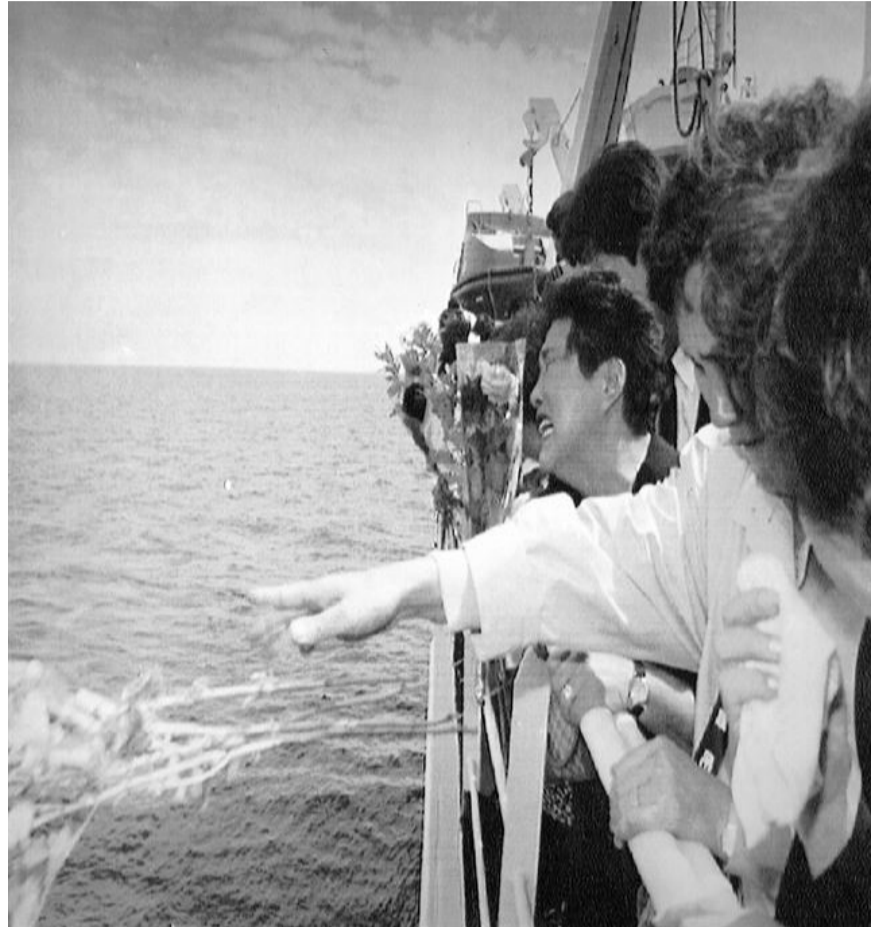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007편이 2대의 소련 수호이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에 맞아 추락했다. 승객 246명, 승무원 23명 등 모두 269명이 숨진 초대형 참사였다. 일본의 공영 NHK는 아침 7시 뉴스에 뉴욕을 출발한 대한항공 007편이 서울로 향하던 중 캄차카 반도 상공에서 일본 레이더망에서 사라졌다는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뉴스를 본 MBC 도쿄 특파원은 즉각 본사에 알렸다.

아침 5시에 일어나면 먼저 NHK 뉴스를 체크하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간단한 운동을 한 후 아침식사

를 하는 게 필자의 매일 아침 일상이었다. 그날도 일어나서 NHK 아침 6시 뉴스를 체크했다. 서울로 송고할 만한 뉴스는 없었다. 마음 편히 아파트 옥상에 아침 체조를 하러 올라갔다.

그런데 NHK 7시 뉴스에 자막으로 긴급속보가 떴다.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서 급유를 마치고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007편이 캄차카 반도 상공에서 레이더망에서 사라졌다는 속보였다. 소련의 수호이 전투기 2대가 대한항공기 007을 뒤편에서 미사일을 발사, 격추시킨 사건이었다.

경쟁사인 MBC 도쿄 특파원이 놓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 본사에 알린 이 뉴스는 긴급 속보로 자막에 떴다. 이를 본 서울 KBS 본사는 난리가 났다. 크게 한방 맞았다. 엄청난 낙종이었다. 기사를 놓치게 된 경위서를 보



1983년 대한항공 007기 피격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사고 해역인 일본 홋카이도 와카나이 해상에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고 있다.

매일 새벽5시 기상, 6시 日 NHK뉴스 체크 그날따라 7시 운동하느라 피격 소식 ‘낙종’

내리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때의 참담한 기분은 지금도 생생하다.

사건은 며칠 후 또 터졌다. MBC가 한국의 취재진이 탄 헬기가 북해도 상공에서 실종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전두환 대통령은 자막 속보를 보고 “뭐라고 소련이 전쟁 하자는 것이냐!”고 소리쳤다. 대통령이 얼마나 놀랐으면 이랬을까?

본사가 급히 나를 찾았을 때 나는 NHK 위성 송출실에서 서울 본사로 영상물을 보내고 있었다. NHK 다나카 팀장에게 본사 국장의 지시 사항을 알려주고 확인을 요청했다. NHK 스태프들이 더 놀랐다. 다나카는 곧바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확인했다. 모든 해상 사고는 해상보안청 관할이기 때문이다. 해상보안청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큰 오보였다. 이번엔 도쿄에 특파원을 보내 놓고 있는 타사 서울 본사가

난리가 났다. 자사 특파원이 혹시 실종된 헬기에 탑승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S특파원은 아침 식사 중에 걸려온 본사 데스크의 전화를 받았다. 혹시 헬기에 탑승하고 있을까 확인하려는 전화였다. S특파원은 “지금 아침 식사 중인데, 왜요?”라고 대답했다.

왜 이런 소동이 벌어졌을까?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MBC 특파원이 헬기를 렌트하려고 007기 추락 현장이 가까운 와카나이 헬기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KAL기가 추락한 해상에 헬기를 타고 가보려는 생각이었다. 렌트사 직원이 “오전에 나간 헬기가 아직 안 돌아와서 렌트해 줄 헬기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 과정에서 MBC 특파원은 헬기가 실종 되었구나라고 해석을 한 모양이었다. 상대방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이다.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났을까? MBC

특파원이 도쿄에 부임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상대방의 얘기를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동료 특파원들을 크게 놀라게 만들었던 경위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한 마디 했어야 하는 상황인 데도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한국취재진이 탑승한 헬기가 실종 되었다는 보도가 났는데 뭐 하는 거야?” 본사 데스크의 고함 소리가 터진 지 16분 만에 상황은 끝났다.

기자의 순간적인 실수와 오보는 치열한 현장기자 들에게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오보가 충격을 준 이유는 물론 대한항공 007기 피격 사건이 터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참사를 보다가 40년 전 대한항공 격추 참사 사건이 불현듯 떠올랐다.☞

대한연론 특별기획 근현대사 실록 25

‘세계가 지켜주는 대한민국’ 만들었다



‘국부(國父)’라 함은 단지 ‘건국정부수립’ 사실만으로 칭하지 않는다. 자신이 세운 나라를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 갈린다. 만약 건국 2년도 안되어

공산연합군이 덮친 6·25 침략전쟁 때 대한민국이 사라졌다면 누가 이승만을 ‘국부’라 하겠는가. 이승만은 세계적인 지정학적 전략가였다.

26) 가자! 유엔으로!

주변 3대강국 일본-중국-러시아가 한반도 쟁탈전을 벌인 청일전쟁-러일전쟁을 겪은 그는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 세계 최강 미국과 손을 잡았다. 동양학의 대가 이승만이 손자병법의 ‘원교근공(遠交近攻)’을 채용한 것, 아니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가 ‘세계가 지켜주는 나라’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바로 국제적 자유과위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의 권위를 활용하여 나라를 세웠던 것이다.

◆자유세계의 힘, 유엔을 이용할 줄 알았던 글로벌 전략가: 해방 후 귀국한 이승만은 공산당을 모르는 미군정이 좌우합작을 추진하자 맹렬히 반대한 일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혹시나 관망하던 미-소공동위원회 협상이 깨지자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이승만은 ‘한국 독립의 큰 그림’을 그려 불굴의 신념과 용기로써 관철한다. 그것은 기발한 용미(用美) 전략, 미국을 활용하여 유엔의 세계적 권위를 업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일이다. 유엔은 곧 미국이다. 지미, 친미, 용미(知美,親美,用美)의 달인 이승만은 미군정 하 지 사령관의 핏박을 뿌리치고 미국으로 달려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젊은 날의 꿈 ‘자유민주공화국’의 건국



평생동지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오른쪽은 트루먼 미국대통령.

- ◆지체 없이 출발한 새로운 역사 창조 수레바퀴는 다음과 같이 돌고 돌았다.
- ◆1947. 11.14---유엔 총회, 유엔 감시 남북한 총선거 결의.
- ◆1948. 2.26---유엔, 소련이 거부하자 남한만의 총선거 결의.
- ◆1948. 5.10---유엔감시 총선거

맥아더와 밀약...유엔, 남한만의 총선거 결의 한국전쟁 때 유엔군 참전 이끈 ‘외교의 귀신’

을 반세기 만에 현실로 만들어낸다.
◆1946년 12월 맥아더의 군용기를 타고 도쿄에 도착한 이승만은 평생 동지 맥아더와 모종의 밀약에 합의한다. 그리고서 워싱턴으로 날아가 백악관 근처 칼튼(Carlton)호텔에 전략본부를 차리고 전방위 외교전에 돌입한다. 한 달 후 1월 새로운 국무장관에 맥아더의 전쟁 동료 조지 마셜(George C. Marshall)이 취임하였다.

맥아더는 기다렸다는 듯 마셜 취임 다음날 1월22일 중대한 전보를 보낸다. 그것은 이승만과 사전에 약속한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이다.
한편 이승만은 백악관과 국무부에 ‘한국문제 해결책’(A Solution for Korean Problem) 6개항을 전달한다. 유엔을 통하여 남한에 과도정부를 수립해서 북한의 소련군을 철수시키고 남북통일정부 수립까지 적극 지원해 달라는 요구 등이다.

실시, 5.30 대한민국 제헌국회 개원.
◆1948. 8.15---역사상 최초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건국 선포.
◆1948. 12.12---유엔,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
◆1950. 6.26---유엔, 기습 남침한 북한을 침략자 규정, 즉시 철퇴 결의.
◆1950. 6.27.---유엔, 한국전쟁에 회원국들의 파병 결의.

두 달 후 3월 ‘트루먼 독트린’이 나온다. 소련의 발칸반도 공산화 야욕을 막기 위해 그리스와 터키에 군사·경제원조를 제공한다는 선언이다. 필 듯이 기뻐한 이승만은 즉각 트루먼에게 “한국은 아시아의 그리스다. 소련의 남침을 막아 통일정부를 세우는 결도와 달라”고 요구한다.

◆미국+유엔의 2중장벽: 이승만은 유엔의 힘을 빌려 대한민국을 탄생시켰으며, 북한이 침략하자 미국과 유엔이 “침략자가 유엔 정신을 짓밟았다”며 즉각 파병하게 만들었다. 즉 유엔은 유엔이 세운 나라를 유엔이 지키겠다고 역사상 처음 유엔군을 창설하여 대한민국을 구출한 것이다.

마셜 국무장관은 ‘트루먼 독트린’ 발표 다음날, ‘한국문제 특별위’를 설치하고 “소련이 한국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으니 남한에 독자 정부를 수립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한다. 제2차 미-소공동위도 깨지자 9월 17일 마셜은 소련에 ‘한국문제의 유엔이관’을 통고하였다. 이승만을 따돌리던 미국이 결국 이승만의 전략을 수용,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세계 정세를 한눈에 꿰뚫는 ‘외교 귀신’ 이승만의 승리! 6·25전쟁 중엔 ‘휴전 결사반대’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평생소원 ‘한미동맹’까지 쟁취한다. 그로부터 70여년 간 극동엔 전쟁이 사라졌고 대한민국은 세계 톱 10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기적이 일어났다. 누가 이승만을 ‘국부’가 아니라고 하는가. 오늘도 유엔군사령부는 평택에서 중국-북한-러시아-일본을 막고 있다.☞



과거 해마다 10월24일 열린 유엔 창설 기념식. 이승만대통령은 미군과 세계 참전국들을 품어안는 국민적 외교행사를 성대하게 벌였다.

인보길(전 조선일보 편집국장·현 뉴데일리 회장)

천지개벽 ‘트럼프 2기’ 시작됐다

질풍과 노도의 ‘미국 우선주의’ 내세워

기획 특집

질풍과 노도의 트럼프 2기가 시작됐다. 질풍처럼 강한 변화의 바람과 잘 설계된 강줄기를 따라 노도와 같은 홍수가 전 세계에 굽이친다. 예사 변화가 아니다. 천지개벽이다. 기존의 정책과 원칙과 관행이 깡그리 무너져 내린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미국의 역사를 다시 쓴다고 말하고 있다.



정일화
본회 회우
전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

그가 취임 당일부터 쏟아낸 행정 명령을 보고 미국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경악한다. 거센 변화의 쓰나미에 강둑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깊은 우려도 있다. 트럼프는 지난 4년 내내 이 강풍과 노도를 준비했고 그가 8년 전 45대 대통령에 당선될 때 외쳤던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강하게’) 구호를 갖고 47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숨쉴 새 없이 설마설마하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엄청난 변화가 밀려 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우리의 제일 큰 관심사인 한반도 정책을 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지칭했다. 러시아 푸틴과 밀착한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레토릭(修辭)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 이것이 미국의 외교정책(대북정책)의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다면 지난 50년 간 서방 세계가 강하게 견지해온 ‘북한 비핵화’ 정책은 깡그리 바뀌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 정부 때 설계한 한미일 3국 협력체제, 나아가 한미동맹 체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 확실하다.

미국 국내문제에서는 타락의 늪에 빠진 미국 사회를 정화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국가 창설이념인 프로테스탄트(청교도) 정신과 매우 멀어진 사회상을 보여 왔다. 대도시들, 특히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과 같은 곳에는 경찰과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난장판 피난처가 생겼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소굴,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성을 바꾼 성전환자, 동성연애자들의 천지로 바뀌고 있다. 공립학교가 이런 반기독교적 정서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학교 보내기가 두려워 가정학교나 사립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 건의 총기 및 흉기 살인사건, 군중에 대한 무차별 차량공격으로 한꺼번에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건, 35만 어린이가 행방 불명으로 사라지고, 화재·산불로 큰



트럼프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트럼프 “타락의 늪 미국사회 정화 시급” 공화당 국민지지 85%…보수주의자 환호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는 사건 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청년들이 꿈꾸는 희망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종교싸움이 벌어지고 소위 부정세력의 원천으로 Deep State 또는 Cabal, 또는 그림자 정부의 조직적 세력이 미국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극단주의 회교도 세력이 주목을 받기도 했고 극단적 공산주의자 또는 좌파주의가 미국 타락의 중심에 있다는 비난도 있었다. 로스차일드은행 같은 거대 금융조직이 미국부패의 원천이라거나 록펠러 같은 대재벌이 부패정부의 지휘봉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부패세력의 중심에 미국 민주

당이 연결되어 있다고 지난 4년 내내 트럼프 선거운동본부가 직접 또는 암시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했다. ‘부정직한 바이든(crooked Biden)’, ‘공산주의자 동무 해리스’(communist comrade Harris)라고 민주당 대통령후보를 공격했다. 트럼프는 심지어 미국 민주주의의 자부심인 자유선거체제도 이런 부패세력에 의해 망가졌다고 4년 내내 부정선거구탄운동을 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부패하고 부정이라면 미국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민주당이나 NYT같은 미국의 주요 언론 매체들은 이런 주장을 펴는 트럼프를 ‘거짓말쟁이 트럼프’라는 표현으로 마구 짓밟았지만 트럼프는 굴복하지 않고 바이든 민주당정부를 통째로 부패

정부라고 몰아갔다. 트럼프에 대한 40건이 넘는 사법처리와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거 막판에 아마도 유죄판결로 체포될 아슬아슬한 순간도 맞았으나 그는 선거를 무사히 치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가 지난 4년간 거센 비판을 거침없이 계속하며 여론을 일으켜 온 폭풍을 민주당은 감당을 할 수 없었다. 공화당이 민주당을 거의 전국적으로 휩쓸며 압도한 배경이 여기에 있었다.

트럼프 지지의 핵심은 기독교 세력이었다. 선거운동 내내 기독교라는 이름이 붙은 단체는 다 찾아 다녔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과 같은
(9면에 계속)

안보-경제 ‘한미 동맹’ 새틀 준비해야

기획 특집

‘북한 비핵화’ 정책 변화 대비

〈8면에 이어서〉

큰 기독교 교단은 물론이고 큰 종교 단체가 멀리해온 소수 기독교단체 또는 이단으로까지 밀린 기독교단체, 예를 들면 아미시, 콥터처치, 시리아크리스천과 같은 소수 기독교단체도 일일이 구애하면서, 오늘날의 이런 미국의 타락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라고 호소했다. 10만이 안 되는 교세를 가진 곳도 많지만 대선주자들이 한 번도 찾지 않던 이들은 트럼프에 엄청난 지지로 화답했다. “추락하고 있는 미국을 고치겠다.” ‘미국의 황금기(golden age)를 만들겠다’는 MAGA구호는 결국 트럼프를 재기하게 만들었고, 미국 국회의사당 로툰다홀에서 간결하고도 탄력있게 치러진 47대 대통령 취임식은 미국청년들의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

주시되는 트럼프 2기의 정책의 변화

지난 4년간의 악착같은 선거 캠페인을 통해 쏟아낸 트럼프의 정견과 정책은 방대했다. 국내정치로부터 국제정치에 이르기까지 개혁하지 않은 분야가 없었다. 어떻게 이 많은 어려운 난제를 재임 4년간에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는 질풍과 노도의 내용을 가시적으로 보이는 문제 해결법을 제시했다. 적어도 몇가지 상황에 초점을 맞춰 트럼프 2기 정부가 미국의 황금기 구가를 위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눈에 보이게 했다. 국내문제는 불법이민자 추방으로 문제를 압축했다. 취임 첫날 미리 준비된 행정명령으로 불법이민자중 범죄자는 즉각 체포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이민자일지라도 학교나 교회 등 민감한 장소에서는 체포하지 않았다. 그 한계를 풀어버렸다. 바이든 정부 4년간 불법이민으로 넘어온 수가 4백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뒤에 이민신청을 하는 경우 우대될 수 있지만 강제 출국되면 정상적인 재입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캐나다, 멕시코를 국경으로 맞대고 있는 주들은 행정명령으로 술렁이고 있다. 이 명령 하나로 트럼프 2기정부의 국민지지도는 85%를 넘었다. 부풀어 오른 트럼프 인기를 실망시키지 않기에 충분했다.

이날 같이 서명한 또 다른 행정명령은 미국시민을 여성과 남성으로만 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행정명령 ‘서명 쇼’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샌디에이고 근처 국경에서 멕시코로부터 불법 입국한 사람들을 국경순찰대원들이 단속하고 있다.

별한다는 명령이었다. 학교, 공무원, 심지어 군대에까지 성전환문제, 동성애문제가 번져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이 명령은 보수주의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군대내의 성전환 군인, 동성애자를 과감히 처리하는 법체계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연방공무원, 공공학교에도 강한 바람이 불어 닦칠 것이다.

트럼프가 바이든정부를 불법정부

하는 나라, 신용이 없는 나라 등으로 공공연하게 몰아붙였다. 이런 적대감은 바로 이웃나라인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덴마크와 전통적인 우호국가인 영국 프랑스까지 포함시켰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고 ‘멕시코만’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고치고 파나마운하를 다시 빼앗아 오겠다는 말도 했다. 트럼프의 독설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었다. MAGA라는 구호는 그대로 표와 연결

로 밝혀져 20% 초과 관세를 물게 되면 전반적인 수출은 13.5%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 중국은 60%까지 관세를 올려 맥을 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상품에 60% 관세를 물린다고 할 때 미국인들은 중국 저가상품을 당장 구할 길이 없고 물가가 오를 것이 뻔하다. 중국 상품은 미국수출길이 막히면 아시아, 아프리카 더 싼 값으로 시장을 개척할 것이 확실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바이든 때 한·미·일 협력체제 변화할 듯 對 중국 관세압박-한국도 영향 받아

라고 내내 몰아붙인 선거부정문제는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사건인 1·6 사태의 피의자 1천5백명을 사면하여 주장의 정당성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부정선거를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모른다. 일단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여론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트럼프 2기 정부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극단적 적대정책으로 나간 대외정책

대외적으로도 트럼프는 극단적 적대정책으로 나갔다. 세계무대에서 미국 다음의 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렸다. 중국은 도적질로 부자가 된 나라, 불공정무역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수행

되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고 간에 국제분쟁을 악의 지배세력에 의한 농간이라는 식으로 풀었다.

무역에서는 미국이 당하고 있는 불이익 또는 불공정한 국가이익을 관세로 때려 잡겠다고 여러번 경고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적어도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상품에 20~60%의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산업 경쟁력을 단번에 올리겠다는 것인데 중국 상품에 몇%의 관세를 먹이느냐가 초점이다. 중국은 2023년 현재 대미무역에서 1조달러의 수출초과를 달성했다. 그만큼 중국경제에 유리하고 대신 미국경제를 위협하게 했다. 한국도 중국, 멕시코, 베트남에 이어 4번째 수출이익 초과국인 것으

트럼프정부는 대외관계를 외교로부터 협상으로 개념정립을 돌렸다. 외교는 힘을 배경으로, 어쩌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힘을 배경으로 깔면서 대외관계를 정립해하는 것인데 비해 협상은 처음부터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내는 관계이다. 유대인의 협상술에서 보면 협상자는 숫자만 갖고 상대방을 저울질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환경, 건강, 인품, 약속이행 정도, 전쟁상태, 심지어 죽음까지도 활용하면서 협상력을 높인다. 오랜 우방으로 남아온 한국도 협상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중심에 서 있다. 한국이 흔들리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흔들린다. 충분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이승만 건국 대통령 부활 오디세이

이승만이 부활해야 대한민국 살아난다



되살리자!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국가가 아니다.

80년 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해방) 좌우충돌의 대혼란의 진통을 거친 후(광복) 기적적으로 탄생(건국)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5천년 민족 역사상 상상도 못했던,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국가체제를 과감히 도입해 대한민국 건국의 우렁찬 팡파레를 울렸다. 그 중심에 이승만 박사가 있었다. 봉건의 잔재를 훌훌 털어 버리고 근대국가 건립과 초석을 다지는데 그의 지성과 열정 그리고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남 이승만 박사. 그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다!

을사년 올해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탄신 150주년(3월26일) 되는 해이고 서거 60주년(7월19일) 되는 크게 꺾어지는 해이다. 우리는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출발점으로 되돌아가 건국의 정신을 되새기고 정기(精氣)를 다져야 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기(邪氣)가 서울 상공을 배회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지금 국가의 정통성이 도전 받고 체제가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역사의 전면에 소환하고 부활 운동을 벌이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3월26일 ~ 7월19일

이승만 부활 오디세이 행사일정

- ▲ 이승만바로알기 국민연합 출범식 : 3월5일(수)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박물관
- ▲ 기념강연회 : 3월5일(수) 오후 3시, 여의도 국회박물관
- ▲ 이승만과 함께 걷기대회 : 4월5일(토) 서울 남산 일대

이승만 바로알기 국민연합 | 사무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8 오성빌딩 1108호

■ **참여단체** : 이승만 건국대통령 동상 광화문광장 건립추진위원회(회장 변정일), 대한언론인회(회장 장석영), 자유헌정포럼(대표 김의재), 한미연합회(회장 송대성), 나라지킴이 고교연합(회장 임주성), 민족중흥회(회장 정재호),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대표 김학성),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한반도미래재단(이사장 구천서), 대한민국지킴이 리박스쿨(대표 손호숙), 한미동맹 이승만재단(회장 노영애), 한국수중협회(대표 홍성훈), 독도사랑 국민연합(대표 황대영), 전군구국동지연합회(회장 최종대), 자유와 연대(대표 최종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표 김근태), 공군학사장교구국동지회(회장 이창호),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총재 이규조), 국민희망시대(회장 손한나)

■ **임원** : 상임고문: 고영주 김의재 송광호 송대성 안병직 인보길 장석영 정재호 황교안
 대표: 변정일 부대표 겸 집행위원장: 구천서 부대표 겸 기획위원장: 성윤환 부대표 겸 홍보위원장: 이규진 부대표 겸 대외협력위원장: 임주성, 김은구
 부대표: 송병대, 심규철, 김영숙 총괄본부장: 김유정 행사본부장: 이진수 홍보본부장: 이일현 상임이사: 양대웅, 인지연, 박재호, 박창우, 손호숙

‘이재명 대선전략’ 25만원 돈풀기

‘독이 든 꿀’ 포퓰리즘 재발하는가

이재명은 ‘선거용 돈 풀기 포퓰리즘’으로 한국을 제2 베네수엘라, 제2 그리스로 만들 작정인가? 2020년 4·15 총선 때 돈 풀어 재미를 본 민주당은 오히려 물가 폭등을 초래해 경제와 민생을 망친 장본인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2024년 4·10총선 때 공약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 포퓰리즘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려면 대략 13조 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 지원금을 이 대표의 핵심 총선공약 브랜드인 지역화폐로 뿌리겠다고 이미 “총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기본으로 단계적인 추가 예산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최근 은행장 6명을 만나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추경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 25만원 지급은 이 대표의 대선집권전략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받는다. 포퓰리즘은 ‘독이 든 꿀’이다. 돈 받아먹고 선거에서 지도자 잘못 뺏으면 국가적 재앙을 맞게 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돈풀기 포퓰리즘’으로 집권 5년 동안 홀로 나라 빛을 410조 가량 늘려 1000조 이상으로 만들고 국민 1인당 2,080만원의 빚을 안긴 장본인이다. 대한민국 건국 70여 년 역사에 5년이란 단기간에 홀로 나라 빛을 40%가량 만든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다.

그런데도 ‘1인당 25만 지급계획’ 공약으로 지난해 4·10총선 때 압승 재미를 본 이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2024년 5월 30일)과 함께 이를 ‘1호 법안’으로 처리했다가 정부가 거부하자 탄핵 정국에서 이를 기필코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의 25만원 지급계획은 불과 5년 전 4·15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준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의 판박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25만원 지급이 “골목 상권을 살리고 민생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현재의 윤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에 따라 실시될 수 있는 조기 대선과 2026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또 다른 ‘표(票)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지난해 22대 총선 직전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발표하자 반대 여론이 거셌다. 코미디언 김영민 씨가 이 공약은 국민을 갈취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이 과거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지나치게 풀어놓은 돈 때문에 지금 고물가란 악마가 아직도 경제와 서민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4·15

사라지더니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복지비란 명목 아래 합법적으로 거액을 뿌리는 매표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때 뿌린 돈은 민생개선 효과는 거의 없었다. 개선이 있었다면 지금 경제가 이런 상황이었는가. 당시 자영업 매출은 3~4월, 길어야 일주일 정도 반짝 좋아졌을 뿐 소득과 소비를 연쇄적으로 늘리는 소위 승수(乘數)효과는 처참할 정도로 기대 이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투입 예산 대비 매출 증대 효과는 최대로 잡아도 36% 정도였다. KDI가 발표한 ‘1차 긴급재난 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증대 효과

서 민주당은 180석(지역 163석, 전국 17석)이라는 압승을 거뒀고 미래통합당은 개헌 저지선(101석)을 간신히 넘긴 103석(지역 84석, 전국 19석)에 그쳤다. 2024년 4·10총선에서는 민주당은 175석(지역 161, 비례대표 14), 국민의힘은 108석(지역 90석, 비례대표 18석)을 얻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우군인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이 얻은 의석을 합치면 범야권은 192석이다. 윤석열 정권은 설사 대통령 탄핵소추가 현재에서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남은 임기 2년 4개월을 사실상 ‘식물정부’로 보내야 할 처지다.

경제엔 공짜 점심이 없다. 현대판 로빈후드(Robinhood)를 자처하며 ‘공짜 점심’으로 나라를 망친 대표적인 포퓰리즘 지도자는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총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필리핀의 에스트라다 대통령,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 등이다. 이들의 최대 집권 무기는 포퓰리즘이고 이들이 국가에 남긴 것은 피폐해진 경제와 국론분열 뿐이었다. 예컨대 세계 1위의 산유국 베네수엘라라는 차베스 대통령의 돈 풀기 좌파 포퓰리즘 때문에 2018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 약 170만%(170%가 아

13조원 필요...文정부 ‘코로나지원금’ 판박이 절대 빈국 전략한 베네수엘라 닮아가

총선 전후 뿌려진 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된 13조원 말고도 근로장려금(5조), 실업급여(8조), 노인연금(13조), 아동수당(2조), 기초생활보장금(12조), 편의점 등 알바 고용지원금(3조), 지자체 재난지원금(5조6천억) 등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별로 ‘청소년 교통비’ ‘등록금 지원비’ ‘독서 수당’ ‘어린이 소풍비’ ‘해녀 수당’ ‘농민 수당’ ‘청년 구직 수당’ ‘청년 채용 공제’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현금이 뿌려졌다. 모두 합치면 100조 원이 넘는다. 이 모든 것은 ‘민생경제회복’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선거용이었다.

돈은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수단이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국민의 민주화 의식이 정착되면서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돈봉투 선거가

는 0.26~0.36배(평균 0.31배)로 나타났다. 4인 가족이 100만 원을 받았을 때 추가 소비로 이어진 것은 26만~36만 원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이는 어려운 민생에 허리띠를 바짝 조여 맨 소비자들이 일회성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소비지출을 추가로 크게 늘릴 턱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25만원 기(既) 지급’과 ‘25만원 지급계획 공약’으로 민주당은 두 차례의 총선에서 압승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치러진 2020년 4·15총선에서 민심의 쓰나미는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보다는 술한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돈을 뿌린 당시 여당 민주당을 택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300석을 뽑는 선거에

니다),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39%, 국가부채비율 182%를 초래하며 2,400만 인구의 90%인 2,160만 명을 절대 빈곤층인 거지로 전략시켰다. 공식 환율은 100만 볼리바르 당 한화 5,000원이지만 암시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아닌 지폐 무게를 저울에 달아 종이돈 1kg(2만 볼리바르)당 한화 10원에 환전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폐는 화장실 휴지나 불쏘시개로 쓰였다. 수십만 여성이 브라질 등 인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몸을 팔아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왔다. 이 꼴이 이 나라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옥식 (본회 부회장,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하형주(유도)

장미란(역도)

정진완(사격)

유승민(탁구)

올림픽·패럴림픽 ‘金스타’ 바쁘다 바빠

1984년 LA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하형주(63)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 사격 우승자인 정진완(59)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정상에 오른 유승민(43) 대한체육회 회장,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역도 금 바벨의 주인공 장미란(42) 문화체육부 제2차관. 이들의 공통점은 올림픽이나 패럴림픽에서 대망의 금메달을 따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 스타라는 점이다.

이들은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주요 체육 기관 단체의 수장을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업무 과약과 추진도 경기장에서처럼 적극적으로 완벽을 지향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진완 장애인체육회장, 89% 지지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은 1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6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64명 가운데 89%인 57명의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이날 선거인단은 시·도 장애인체육회장 15명, 정가맹단체장 31명, 선수대표 8명, 지도자 대표·심판 대표 각 4명, 학계 대표 2명 등 모두 66명으로 이 가운데 64명이 선거에 참여했다.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정 당선인은 충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문체부 장애인체육과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 선수촌장에 이어 2021년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에 당선됐고 이번 선거에서 사상 첫 연임을 기록했다.

유승민도 이기흥 꺾고 체육회장 당선
같은 달 14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은 2016년 8년 임기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선거와 2019년 대한탁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거푸 승리, ‘기적의 사나이’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이번 선거는 2016년, 2021년에 이어 3연임을 노렸던 이기흥(70) 회장을 상대해야 해 고전이 예상됐으나 417대 379, 38표 차로 이 회장을 꺾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함께 문체부로부터 직무정지 처분까지 받은 이기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경기하듯 업무추진 적극적...평판 좋아 최근 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장 당선

흥 회장은 사면초가의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는데 체육계는 평소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이 회장의 ‘자업자득’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승민 당선인도 이기흥 회장의 지난 8년간 행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체육계의 통합과 소통에 주력해야 하며 이번 선거에 앞장서 도움을 준 유남규(57) 현정화(56) 김택수(55) 등 탁구인 중심의 대한체육회 운영을 지양하고 타 종목 출신 인재들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하형주 이사장, 무난한 업무 추진 호평
지난해 11월 20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에서 이사장으로 승진한 하형주 이사장도 무난한 업무 추진으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답다는 평판이다.

하 이사장은 평소 “서울올림픽은 우

리 국민의 단결과 열정을 전 세계에 알린 기념비적 사건이었다”며 “이러한 훌륭한 유산을 계승해 발전시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체육공단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하 이사장은 ▲철학과 가치가 재정립된 정통한 조직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 중심 조직 ▲담대한 도전과 경계 없는 혁신으로 스포츠 복지 수준을 업그레이드 ▲행복한 선수와 경쟁력 있는 엘리트 체육진흥 정책 실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 환경 구축 ▲스포츠 산업을 책임지는 체육공단 ▲스포츠로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7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 이사장은 대한체육회가 선정한 ‘2024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돼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올림픽피아홀에서 열린 현역식에서 현역패를 받았다.

장미란 차관, 체육관련 기관 단체 총괄
2023년 7월 용인대 교수로 재직 중 문체부 제2차관으로 발탁돼 1년 6개월째 한국 체육을 총괄하고 있는 장미란 차관도 영일(寧日)이 없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 관련 기관 단체의 업무 조정, 통제 등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장 차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역도 여자 75kg 이상급 금메달리스트. 당시 인상 140kg, 용상 186kg 합계 326kg으로 세계 신기록을 3.5kg 경신하며 우승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장미란의 올림픽 금메달은 우리나라 여자역도 사상 처음이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 장미란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여자 최중량급(75kg 이상) 4연패를 달성하는 등 한국 여자역도의 상징적 존재다. **이종세(본회 부회장·전 동아일보 체육부장)**

예술인 그 삶과 예술혼 ㉑

1950년대 엘리트 귀공자 이민 ㉒

‘춘향전’ 이어 ‘자유부인’서 톱스타 인기몰이

이민을 ‘춘향전’의 이몽룡 역으로 쉽게 낙점한 이규환 감독은 춘향 캐스팅에는 고민이 많았다. 방자에 선택이, 향단에 노경희로 순조롭게 진행된 캐스팅이 춘향에서 주춤했다. 이 감독은 춘향만은 참신한 신인 여배우를 내세워 관객들의 호기심을 끌고 싶었다. 그래서 이화여대 재학생을 픽업해 본인 승낙까지 받았으나 부모가 완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이화여대 학칙은 재학생이 연예활동을 하면 자퇴를 해야 할 만큼 엄격했다. 여러 번 부모를 설득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더 시간을 끌 수 없어 제작자 이철혁의 아내인 기성배우 조미령에게 춘향역을 맡겼다. 그 때 조미령은 26세로 10대의 춘향역을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캐스팅이 완료되자 ‘춘향전’은 곧바로 촬영에 들어갔다. 이민은 출연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배우들과 촬영·조명 등 일행이 도착한 곳은 예정지인 광한루가 있는 전북 남원이 아니라 이 감독의 고향 근처인 경북 달성군 가창면 냉천동이란 산골 마을이었다. 도착해보니 촬영 여건은 한심했다. 무엇보다도 조명 등 기계를 움직일 동력이 문제였다.

‘춘향전’은 야간 신이 많아 야간 촬영도 해야 하는데 전기가 없었다. 낭패였다. 모두 낙담해서 한숨만 쉬는데, 이민이 발 벗고 나섰다.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근처에 있는 광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마침 이민의 서울대 광산학과 동기동창이 이 광산 소장이어서 협조를 얻어냈다. 광산소장은 전신주 17개를 설치해 전력을 공급했다.

설상가상으로 촬영을 시작한지 2주일 만에 장마를 만나 50여 명의 스태프와 캐스트가 발이 묶이고 진행비마저 바닥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악전고투 끝에 영화는 10개월 만에 완성했다. 35밀리 필름 10권으로 완성된 ‘춘향전’은 1955년 1월 16일 서울 국도극장에서 개봉, 첫날 첫 회부터 만원이었다. 대성공이었다. 휴전이후 겨우 1년여가 지난 당시 서울 인구가 2백만 명이었는데 약 10%인 18만 명이 관람, 국도극장 개관 이래 최대 관객 동원이었다. 당시까지 한국 영화사상 최대 흥행기록이었다. 천지개벽이라 할 만큼 충격적인 문화현상이었다. 이민 주연 ‘춘향전’은 한국영



〈춘향전〉은 1955년 1월 서울 국도극장에서 개봉, 당시 서울 인구 2백만명의 10%인 18만 명이 관람해 그때까지 한국영화 사상 최대 흥행기록을 세웠고 이민은 스타덤에 올랐다.

화 부흥의 화려한 축포였다. 이몽룡역 이민의 능청스런 플레이보이 연기 와 방자와 향단 역을 맡은 선택이 노

쟁을 벌였다. 사회적 논쟁으로까지 비화된 소설 ‘자유부인’으로 정비석은 당시 최고가의 원작료 판권을 챙겼다.

때의 유용성을 가치로 여긴다. 실용적인 것이 선(善)이라는 개념이다.

미국 대중문화·실존·실용의 철학 풍조가 사회를 풍미한 시기에 박인수 사건까지 터졌다. 댄스교사 박인수가 사교댄스를 가르치면서 여대생·유부녀 등 50여 명을 농락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법정에서 박인수는 “진짜 처녀는 2명뿐이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고, 권순영 판사의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는 그 유명한 판결문이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다.

그 동안 한국사회를 성벽처럼 지키고 있던 유교적 도덕과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영화 ‘자유부인’이 나왔다. 이민은 ‘미제라면 모든 게 좋다’는 시대에 ‘미국 물’에 흠뻑 젖은 대학생 신준호 역으로 출연했다. 그 시대의 청년상을 대변하는 역할이었다. 덜렁대지만 세련된 매너에 뛰어난 사교댄스 실력을 미끼로 이웃의 대학교수 부인에게 사교춤을 가르치다 자신의 입술이 상대방의 볼에 닿자 “마담 익스큐스 미” “아이 러브 유” 등 영어를 툴툴이 섞어 말한 약간 능글맞은 플레이보이 캐릭터

서울신문 연재소설 정비석의 ‘자유부인’ 영화화 사교댄스 박인수 사건 겹쳐 사회적 이슈 일으켜

경희 부부의 해학적인 연기는 ‘춘향전’을 장안의 화제로 들끓게 했고, 이민을 스타 반열에 올렸다. 관객들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은 이민은 여세를 몰아 그 이듬해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에 사교댄스 잘 추는 대학생 신준호 역으로 출연, 톱스타로 등극했고 1959년까지 5년 간 한국영화는 그야말로 ‘이민시대’였다.

‘자유부인’은 정비석의 서울신문 연재소설로 인기폭발이었다. ‘자유부인’을 읽기 위해 서울신문을 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인기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쟁을 일으킬 만큼 파문을 던졌다. 당시 서울대 법대 황산덕 교수는 “중공군 2개 사단의 위협을 능가할 만큼 국가 안보와 사회에 도덕적 악영향을 미친다”고 소설 ‘자유부인’을 비판, 작가와 치열한 논

6·25로 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미국 대중문화가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었다. 영어·재즈·사교댄스·초콜릿·커피·추잉검·청바지·미국 유학은 청년 세대에겐 선망의 대상이었다. 또 미국 식 열린 자유연애주의 풍조가 유교의 폐쇄적인 전통 도덕관과 부딪히는 시기였다.

여기에 19세기에 탄생한 유럽의 실존주의와 미국의 실용주의가 한국에 상륙, ‘자아’와 ‘실용’의 철학적 개념이 현실에 씨를 뿌렸다. 실존주의는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밖에서 있는 현실적 존재로서 개인의 자유·책임·주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적·문학적 흐름이다. 실존은 자아로부터 출발, 본질을 선행하므로 인권·자유 개념을 전파했다. 실용주의는 형이상학적인 논쟁보다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였다. 또 “그저 프렌드인 여성과 키스 좀 했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는 식의 말을 거침없이 토해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역할이었다. 이민은 조연이었지만 관객들에게 열광적인 호응을 얻어 단숨에 톱스타로 등극했다. 그 후 5년간 전성시대를 누렸지만 김진규 등 새 스타의 등장으로 1963년 ‘백마고지’를 끝으로 배우로서 생명을 마감했다.

이민은 영화계를 떠난 후 영화계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 때 한·일 합작 영화를 기획했으나 실패한 후엔 영화계에서 종적을 감췄다. 인천에서 운송사업을 한다는 소문이 돌리기도 했다. 사망 연도도 정확히 남아 있지 않은 이민이야말로 진정한 추억의 스타일 것이다.☞

김 화 (본회 이사·편집위원)

K- 조선 호황...4년치 일감 확보로 수출 급증

트럼프 당선에 탄력...조선3社, 13년만에 흑자

한국 조선산업(K-조선)이 호황을 맞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말 현재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많은 1100억 달러(약 160조원) 규모의 4년치 조선 일감(수주잔량 3716만 CGT ※)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출액도 17.6%로 증가, 7년 만에 최대인 256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조선산업은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 9년 연속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대형·고부가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 인력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12만명 선(2024년 말 기준)을 회복했다. 조선 3사의 수주량은 HD현대중공업 46조원, 삼성중공업 31조원, 한화오션 27조원으로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당선으로 더욱 탄력 받는 K-조선

한국의 조선산업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성장세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미국 해군) 선박 건조에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해군력이 턱밑까지 쫓아온 현재 미국의 조선소가 낙후돼 있고, 기술력도 부족한 만큼 동맹국을 활용해 군함 건조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한국의 산업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시 수혜를 기대하는 업종이 거의 없는데, 조선만은 예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선박 MRO(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시장 조사업체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해군 함정 MRO 시장 규모는 올해 577억6000만 달러(약 84조원)에서 2029년엔 636억2000만 달러(약 92조원)로 커질 전망이다. MRO는 단순 수리 개념이 아닌 함정의 생애 관리라는 점에서 조선사에 꾸준한 수익을 안겨주며 새로운 캐시카우(현금 창출원)로 떠오르고 있다. 통상 함정 한 척의 수명은 30년 이상이다. 이 기간에 최소 5~10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한다. 미국은 해군력 유지를 위해 MRO 사업에 연 평균 137억9000만 달러(약 20조원)를 투자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조선업체들은 지난해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고 MRO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 조선산업이 장밋빛 일색인 것만은 아니다.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위주로 적극 공세에 나선 중국 조선소에 절대 수주량이 밀리고 있다.

지난해 말 종료됐는 데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K-조선’ 언급에 편승, 정부가 이를 확대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일감이 포화

중국 해군력 대비 트럼프, 한-미간 협력 강조 고질적 인력 부족 해결에 노사 타협 바람직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대표적 MRO 수혜 기업

미국의 MRO 추진으로 가장 수혜를 볼 조선사는 한화오션이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MRO를 수주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쉬라’와 11월 수주한 7함대 배속 급유함 ‘유콘’을 현재 거제조선소에서 정비 중이다. 두 척 모두 상반기 내에 정비를 마치고 미 해군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한화오션은 또 지난해 6월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선소를 미 해군 함정의 중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필리조선소는 미국 동부 연안 해군기지 3곳과도 인접해 있어 위치적으로 효용가치가 높다. HD현대중공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 해군 선박 MRO 시장에 뛰어들 방침이다. 이 회사는 그동안 MRO를 수주 하더라도 이를 정비할 수 있는 도크(dock)가 부족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으나, 지난해 11월 한국형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건조해 한국 해군에 인도할 정도로 도크 사정이 나아져 올해 미국 MRO 사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실제로 2024년 한국의 선박 수주 비율은 2016년 이후 최저치인 17%로 집계됐다. 한국의 수주 점유율이 10%대로 하락한 것은 조선업 불황이 불어 닥쳤던 2016년(15.5%) 이후 처음이다.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38%에서 70%로 급증했다. 이는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상대적으로 건조가 쉽고 가격이 저렴한 선박 시장을 중국이 장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국인 고용 둘러싼 노사갈등은 걸림돌

외국인 고용을 둘러싼 인력난도 문제다. 국내 조선업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인력난이 외국인 유입으로 차츰 해소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조선업 노동조합이 반발,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도입한 E-7(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 확대 등 외국인 유입정책이 조선업의 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를 고착시킨다며 정부의 비자 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 도입한 E-7비자 쿼터의 한시적 상향이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취득 가능 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3만5000명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처럼 호황기를 맞은 국내 조선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노사 양측의 주장이 합리적 측면이 강한 만큼 노·사·정이 자주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일이 시급하다. K-조선은 반도체나 자동차, 2차 전지 못지않은 한국의 대표적 먹거리 산업임을 명심할 일이다.

(※CGT란 선박의 단순한 무게(GT)에 선박의 부가가치,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한 계수를 곱해 산출한 무게다. 예를 들어 LNG선은 유제품운반선(VLCC)보다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고 부가가치도 높기 때문에 최고급 LNG선은 선박 중량×0.75, VLCC는 선박 중량×0.3으로 계산한다.)

조희곤 (본지 편집위원)

애수

신대남의 '그 시절 그 노래' ②

남인수의 '哀愁의 소야곡'

서정적 노랫말에 애잔한 음성 조화

지난 1월호 첫 회에서 지금 우리 정치 사회가 흡사 1952년 가수 신세영이 노래한 '전선야곡' 같다고 했다. 그리고 한 달이 흘렀다. 그세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은 눈이 내리고 한파가 오고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불확실성의 어두운 밤이다.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영하의 겨울이다. 그 옛날 함박눈이 내리던 밤의 낭만은 간데 없고 양쪽으로 갈리어 눈을 맞고 지새우는 겨울밤의 뉴스가 1938년 불세출의 가수 남인수가 노래했던 '애수의 소야곡'처럼 들리는 가슴 아픈 밤을 맞고 있다.

남인수는 1936년 시에론레코드사에서 9세 소년 시인 김상화의 시에 박시춘이 곡을 붙인 '눈물의 해협'으로 데뷔했다. "현해탄 초록 물에 밤이 내리면 .../ 외로운 수평선에 질어가는 밤"의 가사다. 그러나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1938년 작사가 이부풍(본명 박노홍)이 '눈물의 해협'을 '애수의 소야곡'으로 가사를 바꿔 오케레코드에서 다시 부른 것이 불세출의 가수 남인수의 탄생이다.

동아일보 신춘문에 출신 이부풍의 서정적인 가사에 남인수의 애수 어린 목소리가 어울려 '애수의 소야곡'은 큰 공감을 얻었다.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마는/ 눈물로 달래보는 구슬픈 이 밤/ 고요히 창을 열고 별빛을 보면/ 그 누가 불러주나 휘파람 소리". 한국 트로트의 효시 박시춘과 불세출의 가수 남인수가 만나 한국 가요사의 신기원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애수의 소야곡'이 단순히 떠나버린 옛사랑의 아픔을 노래한 곡인지, 일제 강점기 나라 잃은 백성의 설움을 사랑으로 은유한 노래인지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헤어진 옛 사랑을 그리워하는 순정, 핍박받던 그 시대 백성들의 애달픈 정서가 맞물려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래서 국민의 애창가요가 됐다. 대중가요는 그렇게 한 시대의 상황과 서정을 노래하는 유행가다.

'눈물의 해협'의 소년 시인 김상화는 한 시대를 품기했던 텔런트 김자옥의 부친이다. 필자가 영화기자 시절이던 1970년대 후반까지도 명동성당 입구에 있던 중앙극장의 선전부장이었다.



1938년 '오케레코드사'서 음반 발표된 '애수의 소야곡'

파이프 담배를 물고 보타이를 맨 멋진 신사였다. 가끔 만나도 딸 얘기를 하지 않았다.

남인수의 등장으로 가요계는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고복수 최규엽 강홍식 등 이전 세대 가수들의 시대가 저물고 한국 가요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언론도 "백년에 한 번 나올까 말

어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본명은 강문수. 남인수는 작사가 강사랑이 지어준 예명이다. 폐결핵으로 1962년 44세의 가까운 나이에 운명했다.

나는 유치원인가 하던 때에 어떤 연유인지 기억은 없으나 남인수와 그와 로맨스가 있던 '목포의 눈물'의 가수

단장이자 기획사의 회장으로 그 시대 유일의 증언자다. 남인수는 또 무대 뒤에서 손수건에 각혈을 하기도 하는 고통을 겪었다.

/차라리 잊으리라 맹세하건만/ 못 잊을 미련인가 생각하는 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면/ 애타는 숨결마저 싸늘하구나/ 무엇이 사랑이고 청춘이던고/ 모두가 흘러가면 덧없건마는/ 외로운 별을 안고 밤을 새우면/ 바람도 문풍지에 싸늘하구나./ 3절까지의 가사다. '애수의 소야곡'은 어쩌면 남인수 자신의 이야기였는지도 모른다.

남인수는 지금, 진주 강씨 집안과 남인수 전승보존회에서 진주에 유택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진주시에서 묘소 근처에 남인수의 이름을 딴 '인수정'이라는 정자도 세웠다. 그의 생가가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고 동상이 세워져 있다. 한국 가요사의 가장 큰 별이 너무 빨리 저버린 아쉬움이 크다.

"무엇이 사랑이고 청춘이던고/ 모두가 흘러 가면 덧없건마는..." 되내

“운다고 옛 사랑이 오리오마는...” 국민들 애창가요 남기고 44세 요절

까한 미성 가수의 탄생"이라고 흥분했다. 남인수는 '애수의 소야곡'과 함께 3대 소야곡으로 불리는 '추억의 소야곡' '이별의 소야곡'을 비롯해 '황성 옛터' '낙화유수' '가거라 삼팔선' '달도 하나 해도 하나' '울며 헤진 부산항' '남아 일생' '이별의 부산정거장' '산유화' '무너진 사랑탑' '울리는 경부선' '꼬집힌 풋사랑' '감격시대' 등 제목만 들어도 추억이 어리는 수많은 히트 곡을 남겼다.

그가 부른 노래는 모두 1천여 곡. 기교를 부리지 않는 순수한 미성에 호흡이 길고 음 폭이 넓은 애수 어린 창법이 정확한 가사 전달로 가슴을 친다.

남인수는 1918년 경남 진주에서 태

어난영의 유랑극단 쇼를 몇 번 본 기억이 있다.

남인수는 무대에서 별다른 몸짓이 없었다. 보타이를 맨 단정한 외모, 잘생기고 가볍지 않은 인상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단정한 외모와 청아하고 기교를 부리지 않는 단순한 창법 그러면서도 감정이 녹아있는 서정적인 그의 노래에 매혹되지 않을 수 없는 무대 가수이기도 했다.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기 30분 전부터는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소금을 먹으며 목을 가다듬는 진정한 프로였다"는 것이 유랑극단 시절 스탠프로 함께 다녔던 삼호프로덕션 최봉호 회장의 말이다. 최 회장은 이주일, 하춘화, 나미 등을 배출한 쇼단체의

어 보면 '애수의 소야곡'은 어느 한 사람의 슬픈 사랑 노래라기보다 누구나의 인생 노래였던 것 같다. ...모두다 흘러가면 덧없건마는. 그런데 왜 우리나라 정치는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편할 날이 없는지. 뉴스를 보면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들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그런데, 그렇게 위하는 국민은 왜 그렇게 답답하고 불편한지. 때로는 그런 말들이 왜 식상하고 험하게 들리는지. 정치가 질책과 힐난의 교육장이 아니라, 정책과 협치의 장(場)이기를 바라는 국민의 정서와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눈물로 달래보는 구슬픈 이 밤"이다. ㉞

신대남(본회 회우·전 일간스포츠 편집국장)

회우 광장

국민 눈물 짜게 하는 나라, 닦아 주는 나라



이향숙
본회 이사
전 헤럴드경제 문화체육부장

전제군주 왕이 다스리던 조선 시대에 가끔 왕은 변복을 하고 백성들 사는 모습을 몰래 보러 다녔다. 왕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곳곳을 직접 살피며 아프고 슬픈 백성을 만나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했다. 또 암행어사 제도가 있어서 왕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억울하고 아픈 백성들을 왕 대신 다독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일 전인 1월 18일 우연히 유튜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임기 중 어느 소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장면을 봤다. 그가 매우 거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의아했다. 트럼프가 캐딜락을 타고 경호원들과 함께 어느 곳으로 가는 도중 슬럼프 입구에서 “배가 고파요, 도와주세요”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는 초라한 소녀를 보았다. 그는 경호원의 반대에도 차를 멈추고 소녀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아픈 엄마와 굶주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전사했다고 했다. 그는 소녀와 함께 소녀의 집으로 갔다.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방 한 칸에 엄마는 큰 병으로 누워 있었다. 트럼프는 이후 소녀와 아프간 전쟁 유가족과 노숙자가 된 부상병을 찾아 단체를 만들고 기금을 마련해 주고 도왔다. 이름 없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훈훈한 미담이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발표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그날, 나는 평소대로 6시에 일어나서 TV를 켜 순간 질겁했다. “계엄 선포!” 잠이 덜 깨서 꿈인 줄 알았다. 전 국민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나라 정세가 변했고 대통령이 탄핵돼 수감됐다. 수십만 명의 지지자들은 관저 앞에서 영하 10도 이하 매서운 엄동설한에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며칠간 밤을 새우면서 체포팀을 저지했다. 폭설이 내린 영하 14~15도의 혹한에도 알루미늄 쿨링 호일이나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다. 엄동설한에 한남동 관저 앞과 광화문, 서부지방법원 앞 길바닥에서 국민이 눈물 흘리게 하는 나라가 바람직한 나라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월 23일 열린 선거법 재판항소심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맞는가?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배신자가 되어 완력으로 대통령을 체포, 구금, 구속을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했다.

전과 5범에 최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구속이 안된 채 2심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면서 당대표 노릇을 계속하는 죄인은 불구속되고 당당

파랑색 바탕에 흰 글씨로 쓴 ‘더불어 민주당’ 당기가 그 사이에 빼죽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누가 그 깃발을 들고 당당히 갔을까? 인터넷에 있는 이 기사와 사진이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다. 요즘 민주당이 중국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수시로 들린다. 이 재명이 2005년 평양을 방문하고 김

가고, 도중에 다른 데 들르지 말고 곧장 가라”고 했다. 영문도 모른 채 일찍 하교하는 것만 좋아하며 집에 왔다. 그러다 집 근처에서 고려대 학생들이 “이승만 물러가라”고 떼 지어 소리치는 광경을 보았다. 결국 광화문에서 경찰의 총을 몇 명이 맞아 피를 흘렸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면 물러나겠다”는 하야 성명을 내고 망명길에 올랐다.

혁명이 며칠 만에 거의 비폭력으로 지나간 것으로 기억된다. 4·19의 도화선은 그 전날 4월 18일 마산 합포만 바다에서 마산고 학생 김주열 군이 죽은 채 떠오른 때문이었다. 나는 80년대 중반 현직 기자로 마산 이은상 시인 생가를 답사한 일이 있다. 산 밑의 아주 넓은 빈집이었는데, 안채에는 부호인 이은상 가족이, 바깥채에는 하인들이 살았다고 한다. 안채와 바깥채에 각각 우물이 있었다. 그 우물 앞에는 마산고 학생 시위 당시 학생들에게 총을 쏜 파출소가 있었다. 그 집 안 내인은 우물에 그 시위 당시 피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도 붉은 색이라 마시지 못 한다고 했다.

어떤 이유든 경찰은 국민에게 총을 쏘면 안 되고 시위대도 폭도로 변하

“국민이 원하면 물러나겠다” 이승만 대통령 생각나 선하고 자애로운 애국 애족 정치 지도자 원해

한데, 도주 우려 없는 대통령은 좌파 세력에 의해 즉시 구속되는 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나. 의심스럽고 슬프다. 구속영장을 반대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시위대 86명이 체포됐다. 최근 얼마전 민노총 시위가 거셌지만 체포된 자는 없었다. 대통령이 시위대보다 못한가? 민주당 출신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는 대통령이 사형당할 것이라고 공개리에 말했다. 망발 중의 망발이다.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뜻밖의 기사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2021년 7월 6일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아 북경에서 기념행사로 세계 160개국 공산당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넓은 회의장에는 참가 공산당의 당기가 꽂혀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한 모습과 공항, 숙소에서 접대부와 찍은 사진도 유튜브에 나돌고 있다. 또 유튜브에는 각자 작사 작곡한 대통령 지지, 격려 노래가 20곡 가까이 유포되고 있다. 그 가사만 읽어도 눈물이 난다. 어찌다 나라가 이 모양인가. 왜 국민들이 눈물 흘리게 됐나.

대통령은 옥중에서 시위대에게 폭력 쓰지 말라, 경찰도 유연하게 대처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말 평화적으로 조용히 진행되기를 바란다. 웬일인지 1960년 4·19가 떠오른다. 그 때 나는 중 3이었고 고려대학교 앞에 살았다. 학교에서 오전 수업을 마쳤는데 담임선생님이 “모두 조퇴한다. 이유는 묻지 말고 속히 귀가하되 같은 동네 친구끼리 모여서

면 안 된다. 시위대 86명을 구속하는 일은 지나치고 국민의 눈물과 한숨, 반감을 살 뿐이다. 악은 악을 낳고, 선은 선을 낳는다. 좌파에게 묻고 싶다. 진정 중국의 속국 좌파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가? 속국이 되면 떡고물이 떨어지리라 믿는가? 당신들이 삼천갑자 자동방사도 아닌데 얼마나 오래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리라 믿는가? 당신들이 만든 좌파 세상에서 당신 자식들이 힘들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가? 친중 친북 주사파 전과자 당신들이 대통령을 구속하고 쫓아내고 파괴해서 선량한 국민 눈물나게 하는 일을 즉시 멈추기 바란다.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선하고 자애로운 정치인을 원한다. ☞



APEC 2025 KOREA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吳越同舟

일그러진 영웅들 ‘오월동주’ 가능할까

‘계엄-탄핵’ 극한 대립속 국민화합 해법 찾아야

와신상담(臥薪嘗膽)은 중국 춘추전국시대 오나라와 월나라 간의 싸움에서 전해지는 고사로 가시가 많은 나무에 누워 자고 쓰디쓴 곰쓸개를 핥으며 패전의 굴욕을 되새겼다는 뜻이다.

BC 496년 오(吳)나라의 왕 합려(闔閭)는 월(越)나라로 쳐들어갔다가 월왕 구천(勾踐)에게 패했다. 전투 중 화살에 맞아 죽게 된 합려는 아들 부차(夫差)를 불러 원수를 갚으라고 유언했다. 부차는 가시가 많은 장작 위에 자리를 펴고 자며, 방 앞에 사람을 세워 두고 출입할 때마다 부하들에게 “부차야, 네 아버지의 원수를 잊었느냐!”하고 외치게 하였다. 부차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원한을 되새겼다. 부차의 이와 같은 상황을 파악한 월나라 왕 구천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오나라로 쳐들어갔으나 결과는 대패였다.

구천은 얼마 남지 않은 군사를 거느리고 회계산(會稽山)에서 농성을 했으나 견디지 못하고 오나라에 항복하고 만다. 포로가 된 구천과 신하 범려(范蠡)는 3년 동안 부차의 노복으로 일하면서 갖은 고역과 모욕을 감내해야 했고 그의 아내 마저 부차의 첩이 되었다. 부차는 영원히 오나라에 충성하겠다고 될 것을 맹세하고 목숨만 겨우 건져 귀국했다.

간신히 살아 돌아온 구천은 잠자리 옆에 쓸개를 매달아 놓고 앉거나 눕거나 늘 이 쓸개를 핥아 쓴맛을 되씹으며 “너는 회계의 치욕〔會稽之恥〕을 잊었느냐!”하며 자신을 채찍질했다. 이후 오나라 부차가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북벌에만 신경을 쏟는 사이 구천은 오나라를 정복하고 부차를 생포하여 자살하게 한 것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였다. ‘와신상담’은 부차의 ‘와신’과 구천의 ‘상담’이 합쳐져 된 말로 ‘회계지치’라고도 한다.

지금 우리 정국이 이 와신상담, 마치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가 한 배를 탄 오월동주(吳越同舟)의 형상이다. 불구대천이란 함께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것이니 반드시 한쪽은 죽어야 한다. 이런 극한의 대립관계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오월동주는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한 배를 탄 형상이라면 미워하면서도 공통의 어려움이나 이해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경우를 비유하



는 말이다.

이의 원전은 손자(孫子) 구지편(九地篇)에 나오는 손자의 말로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서로 미워한다. 그러나 그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게 되면 서로 돕기를 좌우의 손이 함께 협력하듯이 한다”고 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부득이 협력을 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우리 정국의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대한민국의 국민도 ‘국민’과 ‘인민’으로 갈릴 듯 하다. 같은 국민인데 인민은 무엇이며 사람은 또 무엇인가.

공격과 수비로 나눠 9회에 걸친 공방전을 벌이는 야구에서 해법을 찾아보자.

따지고 보면 야구는 언제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데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지금 해법을 찾아야하니 말이다.

가령 축구나 농구같은 구기종목은 시간성이라는 한계속에 단병접전으로 야성을 폭발시키지만 야구는 바둑알을 굴리는 논리적 바탕위에 완급자재, 허허실실의 구석구석을 파고들면서 승부를 가려낸다.

축구의 스코어 차, 농구의 스코어 차는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시간이란 벽에 부닥치고 말지만 야구는 시쳇말로 그 마지막순간까지도 언제 짱하고 해가뜰지 모르는 역전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야구의 매력은 가능성이라고 했지만 그 가능성은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는 것만이 아니다.

스탠드에 앉은 팬들은 언제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날 에러를 기다린다.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심리가 더 오묘한 것이다.

야구에서는 7회를 ‘러키세븐’ 행운의 이닝 이라고 하지만 엄격히 따져서 반드시 행운의 7회만은 아니다. 한쪽에 러키세븐이 성립된다면 그 반대편은 비운의 7회 가 되지 않는가 말이다. 한편에서 대역전의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속성으로는 형님 실수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역경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러키세븐의 역전기회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어느 스포츠건 실수가 유발되지 않는 경기가 없지만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실수가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야구라고 할 수 있다.

재수 좋은 사람은 물에 빠져도 고기를 물고 나오고 재수 없는 포수는 곰을 잡아도 웅담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야구가 아닌 현실의 우리는 지금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좌파는 마치 차체에 우파를 궤멸시켜 버릴 듯이 기세등등하게 돌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견문발검하듯 칼을 빼들었지만 이란격석(以卵擊石)으로 박살이 나고 말았다. 다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도 있지만 다된 밥은커녕 선 밥조차 발치에 쏟아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이 결론은

아니다. 아직도 영웅에의 기대는 살아 있다. 용기와 지략을 감추고 있는 그가 진정한 영웅인가, 아니면 등신 머저리소릴 듣는 패배자인가. 이대로 상황이 흘러가면 역전의 가능성은 더 희박해 질 것이다. 지금은 시간의 전쟁이다.

국가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안전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라도 국가가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민과 나라 전체를 절망 속으로 빠뜨릴 것이다.

나라 곳곳에 위험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 사각지대를 찾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떤 참사의 반복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이 현실적 위기감을 통감하는 가운데 사고 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리더는 내일예의 확신을 심어 줄 영웅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겹쳐히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온 나라 국민의 소리가 원성이 될 것이다. 그간 정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자유민주정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제삼 제사 고심할 때다.

그간 이무기도 되지 못한 미꾸라지의 용트림이었다. 그래도 일그러진 영웅의 ‘영웅’복귀인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최명우(본회 회우·회장 보좌역)



가깝고도 머나 먼 ‘헌법재판소 가는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1, 2차 변론 기일에는 공수처에 체포된 상태여서 출석하지 않았으나 3차 기일인 1월 21일과 23일 4차기일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현재에 출석, 직접 변론에 나섰다. 3차기일 모두 발언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등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

고,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헌법재판소로 통하는 서울 종로구 계동 입구를 버스 차벽으로 봉쇄해 윤대통령 지지자들의 접근을 막았다. 현재로 가는 길이 막히자 지지자들이 현재와 가까운 서울 종로구 운현궁 앞길에서 탄핵 반대 및 석방 촉구 시위를 벌였다.

(정승호 신문편집위원장)

명품인생

진정한 용기는 주먹을 감춘다

지금 야구의 지도자가 돼 있지만 한 시절 홈런왕으로 명성을 날리던 이승엽의 옛 에피소드가 있다. 2003년 6월 22일 밤 대구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과 SK와의 경기에서 이승엽은 3-2로 뒤진 8회말 1사에서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트렸다. 이로써 26세 10개월4일의 이승엽은 일본 프로야구의 대스타 왕정치(王貞治)를 제치고 세계 최연소 300호 홈런 고지에 올랐다. 이승엽은 이 경기에서 9회말 끝내기 만루 홈런을 쏘아 올리며 용맹을 떨쳤다.

그 무렵 미국의 뉴스 전문채널인 CNN이 이승엽의 집단 몸싸움을 해외토픽으로 보도하면서 주먹다짐을 하는 장면을 화면에 올렸다. 또한 이를 두고 한 국내 스포츠 전문지는 “국민타자의 주먹이 전 세계에 방영됐다”며 과장된 토를 달았다. 이것만 봐도 그의 인기가 대단했다는 걸 실감할 수 있다. 그런데 야구의 집단 몸싸움은 실제 패싸움이 아니고 시비가 붙은 동료를 옹호하고자 덕아웃의 선수들이 몽팡 쏟아져 나오는

‘Bench Clear’로 쇼맨십에 가깝다. 이때 벤치에 남아있는 선수는 비겁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양쪽의 선수들이 몽팡 그라운드로 쏟아져 나와 집단 몸싸움 같이 보이는 것이다.

어찌됐든 뉴스들은 이승엽의 신기록을 전 세계에 타전했고 시사주간지 ‘타임’은 그를 아시아판 표지에

尹대통령, 즉흥적 결단으로 ‘계엄파국’ 서두르지 않는 지혜로 대역전 피해야

올렸다. 이승엽은 이미 국제적인 스타로 발돋움했고 그의 경기장 해프닝이 국제뉴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스포츠의 집단 몸싸움은 남이 보기에 과격할 느낌을 준다.

박찬호도 LA다저스 시절이던 1999년 6월 애너하임의 팀 벨처에게 발을 치켜들었다가 7경기 출전정지와 함께 3,000달러 벌금의 중징계를 받아 현지 언론으로부터 ‘태권도 투수’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러

고 보면 이승엽도 ‘태권도 타자’ 꼽히는 걸까. 그 때 이승엽의 행동은 약삭빠르지 못했다. 한 덩어리 몸싸움을 벌일 필요가 있을 때 냉철한 판단으로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어야지 왜 괜한 주먹동작으로 손해를 보는가. 정치도 스포츠도 즉흥적으로 나서서는 결코 승리의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게임 한 판 제대로 해보려다 그만 게임 아닌 계엄선포로 일그러진 영웅이 되고 만 윤석열 대통령이 안타깝다. 크게 되려면 용기와 지혜를 앞세워라.

진정한 용기는 주먹을 감추게 마련인데 그만 서둘러 오른팔을 내밀었다가 창살없는 독방의 수감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찬스는 이제 부터’라는 스포츠계의 불문율을 따르지 않더라도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뜨는 법이다.

냉정한 승부의 세계 바둑에도 많은 격언이 있는데 그것이 인생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양쪽을 모두 취하는 것이 명품묘수 아닌가. 그중 하나가 부득탐승(不得貪勝)인데 이기려고 욕심을 내서는 결코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묘수 세 번 두면 그 바둑은 진다”라는 것도 있다. 묘수는 기발한 착상으로 다 죽어가던 돌을 살리거나 전세를 역전시키는 수를 말하는데 하수는 화려한 묘수에 환호한다. 하지만 묘수를 연발해서 바둑을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묘수를 둔다는 것은 바둑의 형세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증거이다.

위기에 몰린 다음 묘수를 찾는 것보다 위기가 오기 전에 기초가 든든한 수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비록 일그러진 영웅일지라도 묘수를 찾으려 발버둥 칠 필요는 없다. 야구에서처럼 럭키세븐의 기회가 있고 9회 말 대역전의 환희를 맛볼 수도 있지 않은가. 서두르지 않는 진정한 용기가 영웅을 만든다.☞

강이산/극작가

“仁祖反正의 교훈을 되새기자”

광해군의 인목왕후 유폐-줄타기 외교 신하들 반기

황원갑의 史談史話



황원갑
본회 회우
소설가, 역사연구가

- 주상(인조)이 의병을 일으켜서 왕대비(인목왕후)를 받들어 복위시킨 다음 대비의 명으로 경운궁에서 즉위하였다. 광해군을 폐위시켜 강화로 내쫓고 이이첨 등을 처형한 다음 전국에 대사령을 내렸다. - <인조실록> 인조 1년 3월 13일



조선시대 폭군 광해를 몰아낸 인조반정은 역사를 2백년 후퇴시킨 정치혁명이었다. 사진은 2015년 인조반정을 다룬 인기 TV 드라마 “화정”의 한 장면.

인조반정(仁祖反正)은 1623년(광해군 15년) 4월 11일 서인(西人) 반정 세력이 광해군과 대북 세력을 축출하고 왕의 조카인 능양군 종을 새로운 왕(인조)으로 추대한 사건이다. 주동자는 왕이 되는 능양군과 ‘4대장’으로 일컬어지는 김류·이귀·신경진·이서·최명길이다.

반정을 통한 인조의 집권은 실질적인 조선 제2의 창건으로 평가된다. 당파로 보면 이후 서인의 절대 우위를 만들었고, 왕통으로 보아도 이후 모든 국왕은 인조의 후손이었다. 인조반정은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눈 분기점이었다.

인조반정은 광해군의 인목왕후 유폐를 계기로 불만 세력이 커지고, 5년간 쟁점을 차지했던 명과 청 줄타기 외교노선은 국정을 마비시켰다. 명나라의 징병척서 거절 및 후금과의 배후교섭 등으로 대표되는 광해군의 친후금에 가까운 외교노선은 지지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하들은 왕명을 무시하거나 출근을 거부하면서 국정이 마비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광해군 말기 2, 3년간 농민경제는 총체적인 붕괴에 들어섰다.

서인은 인조반정 성공 즉시 복인 제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정인홍과 이이첨을 비롯한 폐모론에 적극적이었던 대북의 핵심 요인 대부분이 사형을 당했고, 200여 명에 달하는 그

추종자도 유배에 처해졌다. 반정의 주역인 이귀와 김류를 비롯한 4대장과 최명길·장유·심기원·이시백·이시방·김자점·한교 등 33명은 정사공신으로 신정권의 요직을 차지

책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이는 시대의 변화를 모른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그 결과 임진왜란 7년 전쟁이 끝난 지 40년도 안 되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당해 결국은 ‘오랑캐’라고 멸시

반정 성공후 서인세력 反淸 정책 돌변 결국 병자호란 겪고 청나라에 굴복

하여 서인이 득세하게 되었으며, 반정을 방조했던 남인도 남인 원로 이원익이 영의정에 임명됨으로써 제2의 당세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2등 공신에 봉해진 이괄은 자신이 1등공신이 못 된 데 불만을 품고, 핵심 공신 김류와 척을 지다가 결국 반란을 일으켰지만 진압된다.

광해군 재위기간 내내 이어진 거대한 궁궐공사는 중단되고, 세금이 덜어지면서 민생은 분명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영정법·대동법·호패법 등 각종 제도개혁은 광해군 때에 토목공사와 수탈로 손을 놓아버리는 바람에 많은 시행착오와 지난한 실무 인제 육성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인조반정 성공으로 정권을 잡은 인조와 서인들은 광해군의 친청반명 정

하던 여진족 청나라에 항복하고 이후 왕조 말까지 청의 속국처럼 죽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 의식은 더욱 극성을 부려 이후 연호(年號)는 청의 연호를 쓰지 않고 망한 명의 마지막 연호 송정(崇禎)을 써서 ‘송정후 ○○년’식으로 표기했다.

또한 유학(儒學)의 성리학사상에 더욱 천착하여 성리학 외의 모든 사상과 학문을 이단으로 몰아 배척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200년이나 후퇴시키고, 모든 유학자들을 ‘새끼 중국인’으로 만들었다. 사대주의 사학의 심화는 불가결했다.

뿐만 아니라 인조는 할아버지 선조를 닮아 염기적인 임금이었다. 청나라에 끌려가 오랜 인질 생활을 하고 돌

이달의 시

후지산아 알고 있느냐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뜨거웠던 갑진년 여름
일본 야구의 성지
고시엔(甲子園)에서
열도를 향해 울려 퍼진
젊은이들의 함성

후지산(富士山)아 알고 있느냐
5천년 전 동해바다 건너온
예맥(濊貊)의 후예들이 세운
야마토(大和) 땅을

임진·정유 양란(兩亂) 때
사무라이 보내
무수한 선민(鮮民)들을 도륙하고
을사·경술 국치(國恥) 때 선조의
강토를
약탈하고 병탄한 천추의 한(恨)을

이제는 알아야 하느니라
조상의 부리와 발자취를 깨달아
거룩한 예맥의 옛적 꿈자리를
알아야 하느니라

이 규 진
시인, 총괄 부회장

아온 맏아들 소현세자(昭顯世子)를 잠재적 왕권 도전자로 몰아 독살했고, 며느리 강빈(姜嬪)도 독살했으며 손자들도 제주도로 유배시켰다가 죽인 매우 비정상적인 임금이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래서 교훈을 준다. 인조반정이 주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고 되새겨야 한다. 역사의 무대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유물론적 좌파사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 사람들은 주변에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인조반정식 시대착오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정치에세이

언론이 이성을 잃으면 파국 불러온다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 '묵살'...입법·사법 독재는 외면



조광동
재미언론인
전 한국일보 기자

한국은 지금 의회 폭거와 사법부 꼼수와 언론의 선동이 야합해 국가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야당이 각본을 쓰고 '우리법 사법부'가 연출하고 경찰이 행동대가 되고 언론이 선전·선동대가 되어 내란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은 내란 수괴범으로 몰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념으로 세뇌된 좌파들이 환호성을 울리고, 좌절한 우파들이 분노를 터뜨리면서 한국은 내전의 문턱에 이른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그 뇌관이 안 터지기만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심리적 내전 상황에 빠진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쓰고 보니 말이 막혀 버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격한 감정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멀리서 조국을 바라보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실패로 돌아가자, 야당 국회는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범으로 단정하고,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고, 대통령 대행의 대행을 겁박했습니다. 좌파가 동지를 틀고 앉은 '우리법 사법부'는 독재 국회와 손잡고 대통령을 편법과 불법으로 체포했습니다. 입법 독재, 사법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한국 언론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저 멀리 있는 가난하고 후진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계엄의 명령을 불러냈느냐고 질타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물어야겠습니다.

어떻게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온갖 잡죄, 중죄에 연루된 피의자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가지 잔머리, 날조를 통해 재판을 지연, 훼손시키고, 당대표를 구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조폭, 양아들, 개팔로 만들고, 피의자 당대표를 조사한 검사를 청사 내에서 대변했다는 황당한 소문으로 탄핵하고, 담당 판사를 겁박하고, 정략적 목적을



4·15 총선 이후 조직적인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신문 방송 등 한국의 주요 언론은 이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08년 8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해 공직자를 막가파식으로 줄 탄핵하고,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해 특검을 밥 먹듯 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억지 법안을 남발하고, 상대편을 실패한 정부로 만들기 위해 필수 예산을 바닥으로 삭감하는 막장 정치를 합니까?

어떻게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드러나고, 그것을 감추려는 변명이 구차하기만 한데도 언론은 음모론이라 눈 감아 버립니까? 투표

크,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해 남미, 아프리카 국가에 수출돼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키고, 이재명과 사법 거래 혐의를 받는 권순일, 바구니 투표를 만든 노정희, 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를 유효표로 인정한 노태약, 위조 투표가 확실해 보이는 수천 장 투표지를 유효표로 인정한 조재연이 대법관이고 선거관리위원장이었다는 것을 언론은 문제 삼질 않았습니까.

권력 야욕에 좌파 극성...자유 민주주의 위기 조국 위기 상황에 해외동포들 걱정과 아픔

용지가 줄줄이 달라붙고, 뺨뺨한 가짜 투표지가 몽탕이로 나오고, 중국인들이 개표 요원이 되고, 실제 투표자 수와 발표된 투표자 수가 다르고, 괴이하게 훼손된 배춧잎 투표지가 나오고, 도장 찍지 않은 투표지가 나오는 부정 선거를 공개적으로 따져보자 하면 음모론이라 눈감고, 부정 의혹을 받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받기를 거부하고, 선관위를 감사하려 한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해도 문제 삼질 않고, 선관위와 사법부가 담합해 부정 선거 의혹을 은폐해도 언론은 왜 제대로 취재하질 않습니까? 계엄 선포한 대통령을 내란 수괴범으로 만든 객기 있는 언론이라면 이것도 용감하게 파헤쳐야 했습니다.

부정 선거는 민주주의 최대의 적입니다. 5년간 선관위 보안 컨설팅을 위장 수의 계약했던 회사가 문재인 후원자였고, 한국산 전자 개표기가 이라

부정선거론이 대두되자 언론은 이 개명천지에 무슨 잠꼬대 같은 음모론이냐면서 경기를 일으키고, 야당 핵심 당직자들이 국회의원 당선 숫자를 귀신같이 맞혀도 의아해하질 않았습니다.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려면 1초에 한 번씩 천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는 통계학자의 전산 개표기 부정선거 가능성 주장을 언론은 냉소했습니다.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한국 언론은 인수분해 수학 실력으로 양자역학자를 가르치려 들고, 케케묵은 골동품 머리로 AI 시대를 가르치려 합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일소에 부칠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취재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책무입니다. 한국의 언론은 사법부와 선관위의 말만 중요시하고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으로 묵살했습니다. 지금처럼 사법부와 선관위가 한통속이 되어 거대한 부정부패의

카르텔을 형성한 마당에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곳은 언론밖에 없습니다. 3·15 부정선거나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론이 파헤치지 않았으면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강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 구조해야 합니다. 국가 기능이 고장이 나고, 부정 선거 의혹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국가가 물에 빠진 것입니다. 적당주의, 무사안일주의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팔짱 끼고 방관할 수 없습니다. 정치 쓰레기를 청소하고 부정 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대통령은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 비상수단의 하나가 계엄입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의 하나이고 필요한지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합니다. 이게 내란입니까?

멀리서 조국을 숲으로 바라보는 이 민자의 가슴에는 한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조마조마한 걱정과 아픔이 밀려옵니다. 한국인들의 극단성이 집단 광기에 휩쓸려 광란하고 있습

니다. 권력 야욕에 취한 좌파의 '홍위병'들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불타고 있습니다. 이 불을 끄고 제동을 걸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언론입니다.

어떻게 세계에 우뚝 선 선진 한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느냐고 흥분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계엄을 선포해야 할 만큼 속이 썩고 부패하고, 조폭 정치, 막장 정치로 추락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 비상사태입니다. 선진국이라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래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까지 이성을 잃고 절제와 균형을 잃으면 한국은 파국으로 갈 것입니다. 한국의 파국은 단순한 파국이 아닙니다. 휴전선 넘어 북에는 야수적이고 극렬한 야만과 광기의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는 그들의 손발에 기생하는 자생적 숙주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16일) ㉞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2024. 12. 25 ~ 2024. 1. 22>
<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회비

| | |
|-------------------------------|--------------------|
| 김기동(2025) 30,000 | 김명수(15-17) 100,000 |
| 김선기(2025) 30,000 | 김정삼(2023) 30,000 |
| 김동준(2025) 30,000 | 나용경(2025) 30,000 |
| 박문국(2025) 30,000 | 박순신(2025) 30,000 |
| 박응수(2025) 30,000 | 박준구(2025) 30,000 |
| 이동훈(25,26) 60,000 | 이충남 (2025) 30,000 |
| 장성원(2025) 30,000 | 정운택(2025) 30,000 |
| 박현수(2025) 30,000 | |
| 김윤찬(입회비, 연회비) 330,000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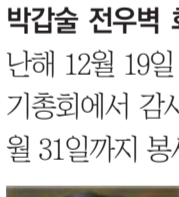
회우 동정

감학준 전 동아일보 회장 인천대 이사장 재선임



감학준 회우(전 동아일보 회장)가 최근 인천대학교 제5대 이사장으로 재선임 되었다.

박갑술 전우벽 회우 CBS사우회 감사에 선임



박갑술 전우벽 회우(사진 좌·우)가 지난해 12월 19일 CBS사우회 제28차 정기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돼 2026년 12월 31일까지 봉사한다.

이창섭 EBN 산업경제신문 사장 선임



이창섭 회우가 지난해 12월29일 경제신문지 EBN 산업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대한언론인회 주요활동

- 언론인 복지·후생·친목
- 언론관계 연구·출판
- 언론상 시상 ■ 언론문화 창달

신입회원 환영합니다



김윤찬 회우

1978년 서울신문사 기자 입사. 편집국 사진부장 역임. 한국사진기자협회 심사위원 역임. 사단법인 한국보도사진가협회 전 부회장.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이용권 회우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216, 105동 1902호 (디엠씨SK뷰)

언론가 소식

신문윤리위원회, '언론이 놓친 것' 발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기사 속 윤리, 언론이 놓친 것'(박영사 2024)을 발간했다. 이 단행본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신문윤리위원회 월간 소식지 '신문윤리'에 실린 주요 심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관훈클럽 총무에 김승련 동아일보 논설위원



관훈클럽은 지난해 12월19일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71차 정기총회를 열고 김승련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제72대 총무로 선출했다.

서울신문사, 롯데콘서트홀에서 봄날 음악회



서울신문사는 올해 '봄날 음악회'를 2월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기로 했다.

한겨레신문도 토요일 신문 발행 중단

한겨레신문(발행인 최우성)이 지난해 12월부터 토요일 신문 발행을 중단했다. 토요일 자 신문발행 중단은 지난 2010년 1월 문화일보, 2018년 7월 서울신문, 2024년 1월 경향신문, 2024년 5월 세계일보에 이어 한겨레가 다섯 번째다.

한국경제신문, 아시안 미디어 어워즈 은상



한국경제신문(발행인 김정호)은 세계신문협회(WAN-IFRA) 주최로 지난해 11월 2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안 미디어 어워즈에서 국내 언론사 최초로 베스트 수익 다각화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KBS 대기획 <성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2024년도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KBS 대기획 <성물>이 지난해 12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토착신앙 등의 성물을 통해 바라본 인간의 삶과 종교의 본질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윤주영 회우

(전 문화공보부 장관) 1월 6일 별세, 향년 96세.



백일진 회우

(전 서울신문 편집부장) 1월 1일 별세, 향년 82세.

김명수 회우

(전 경향신문 사우회장) 1월 3일 부인상

연회비는 회원의 자존심입니다.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석영
- 주 필 구월환
- 총괄부회장·사무총장 이규진
- 신문편집위원장 정승호
- 편집국장 송창기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튼튼하게
탄탄하게
튼튼하게

K.스포츠 크리에이티브

KSPO홍보대사 박세리

체육진흥기금 조성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사업 등을 통한 체육진흥 기금 조성

스포츠복지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국민체력100, 생활체육 시설 조성 등 지원

스포츠산업 지원



스포츠산업 금융, 스포츠 기업, 일자리 및 창업 등 지원

서울올림픽레거시 사업



올림픽공원, 서울올림픽 기념관, 소마미술관, 서울올림픽파크텔 등 운영

체육인재 육성/지원



체육인재 육성 (K-스포츠 에듀), 체육지도자 양성, 체육인 복지 지원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VISIT GANGWON YEAR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GWTO 강원관광재단
Gangwon Tourism Organization

